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PASTORAL STRATEGIES TO RECOVER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A CHURCH

written by

YUN HWA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May 15, 2007

**PASTORAL STRATEGIES TO RECOVER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A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UN HWAN KIM

MAY 2007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전략: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김 윤 환

2007년 5월

Abstract

Pastoral Strategies to Recover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a Church

Yun Hwan Kim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great revival movement in the history of Korean churches seems to have been a past event. Even though Korean churches have been grown up,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look negatively at their phenomena; so people became to ignore churches around themselves. Korean churches, however, have a vision of the great revival again in the near futu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trieve the church community for the vision.

This Ministry Focus Paper deals with five data of recovering the church community. In the first stage, the theological basis for community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essence of church. The basis of community is placed in the nature of the triune God and church is charged with the mission of building up the community.

As a historical research, the second stage compares between the communities of Jerusalem Church and Antioch Church, two representatives in the Acts. In the early church history, most churches began to start church community by partaking community itself. Moreover, we could identify that the church revival was accomplished through strengthening the community.

Third stage introduces the assignments for recovering Korean church communities. One of the reasons of the stagnation of Korean Church is the Confucianism that emphasizes too much the group-egoism; so many Korean churches do not know how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society. Korean churches should engage the rapid change of the contemporary culture by

developing new ministerial leadership paradigm and promoting the communities.

In the fourth stage, the diagnosis and assignments for the Hana Church are addressed. The practical task for the healthy church will be naturally introduced by looking in the history and pastoral diagnosis of the Hana Church. Most of all, for renewing church, the paradigm of church should be changed from the typical pattern to the biblical community-oriented church with the help of the good pastoral theology and vision.

In the last stage, the strategies for the community of the Hana Church are introduced: new system for reinforcing community, the ministerial programs, and many ways of promotion of relationship. Healthy church and her revival will be possible not by our simple-minded passion but by recovering the real communit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연약한 자들 택하셔서 주의 복음과 교회들 위해 헌신하게 하심과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성서신학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눈을 뜨게 하신 김세윤 박사님과 권문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과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과 배려와 도움을 주신 김태식 목사님 그리고 풀러신학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마칠 수 있기까지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와주신 하나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들,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들 위해 섬 없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바쁜 목회사역 중에서도 도와준 하나교회 교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나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비전을 품고, 세계들 향해 크게 많이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하나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논문이 이들 위한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7년 4월 김윤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	9
제 1 절 하나님의 본질과 공동체성	9
제 2 절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13
제 3 절 종말론적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	19
제 3 장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공동체 비교	25
제 1 절 예루살렘교회의 공동체성	25
1. 예루살렘교회의 설립배경	26
2. 교제하는 공동체	28
3. 기도하는 공동체	29
4. 나누는 공동체	30
제 2 절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	31
1. 안디옥교회의 설립배경	31
2. 교육하는 공동체	33
3. 선교하는 공동체	33
4. 다양성의 공동체	35
제 3 절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공동체성 비교	36
제 4 장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	39
제 1 절 문화의 고집을 넘어서	40
제 2 절 성장의 유혹을 넘어서	43

제 3 절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44
제 4 절 교회의 일치와 연합	47
제 5 장 하나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	50
제 1 절 하나교회의 역사	50
제 2 절 교회현장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위한 진단	51
1.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성서적인 공동체적 교회로	51
2. 인천 제7교회에서 하나교회로	55
3. 패러다임의 전환과 조직의 변화	56
제 3 절 목회신학	57
1.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58
2.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	60
3. 목적을 위한 공동체	63
제 4 절 목회비전	64
1. 3-3-3 비전	64
2. 복지목회	68
3. 출산목회	69
제 6 장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	71
제 1 절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성	71
1. 가족교회로서의 선교공동체	72
2. 직분자로서의 소명공동체	74
가. 직분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	75
나. 직분의 목적	76
다. 직분의 권위	78
3. 사명자로서의 사역공동체	79
제 2 절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81
1. 특화된 헌신예배	82

2. 여리고 작전	83
3. 예수가정선교캠프	85
4. 축제화 된 제직회	85
제 3 절 지역민과의 공동체적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	86
1. 왕진목회	88
2. 노인대학	89
3. 선교유치원운영	90
4. 장의사역	91
제 7 장 결론	94
참고 문헌	100
Vita	103

그림 목차

<그림 I> 하나교회 공동체 구성표	81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연구 목적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시각이 우려를 넘어 위기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적으로 볼 때 짧은 한국교회역사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1940년대까지 국민의 약 5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기독교의 인구가 1980년대까지 국민의 약 25퍼센트를 넘어서는 약 1,2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였다. 또 성급한 교회성장 학자들은 2000년에는 약 40퍼센트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교회의 성장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는 성장이 멈추어 버렸다.¹⁾ 지금은 오히려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2006년 5월26일 발표한 지난해 인구통계에서 기독교신자는 876만6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4만4천여 명(1.6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 신자는 74.4퍼센트 증가한 514만1천여 명, 불교신자는 13.9퍼센트 증가한 1천72만6천여 명으로 조사됐다. 유독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감소해 교세가 받은 충격은 그만큼 컸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난 30여 년간 교회성장에 주력하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하는 결과를 거두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경제와 같은 거품 성장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내적인 성장은 외면한 채 외적인 성장을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회성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교회가 정확한 진단과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장기적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²⁾ 한국에서의 기독교가

1)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37.

다른 종교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장에만 집착해왔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해 온 것이다.

교회의 성장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재 부흥은 교회와 지도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성희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적응력을 상실했기 때문³⁾이라고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들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회와 교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⁴⁾

21세기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라고 주장하는 릭 워렌(Rick Warren)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성장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며,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⁵⁾ 교회의 건강은 교회의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여 단기적인 안목으로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구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상업주의와 물량적 사고가 팽배하여 점차 교회 내에서도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주의로 작용하게 되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⁶⁾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일체성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결과 교회는 개인중심의 지나친 이기적 기복신앙이 일반화 되고, 외적 성장이 곧 목회의 성공이라는 가치만을 추구하여 개교회주의가 만연하여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을

2)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1.

3) Ibid., 16.

4) Ibid., 11.

5) Rick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2004), 24-25.

6)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41.

상실하게 되었다. 공동체의 본질인 유기적 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상실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외적성장에도 한계를 지우기 마련이다.⁷⁾

어느 집단이고 그 집단의 크기가 늘면 집단원간의 의견일치가 어려워지고 결국 생활방식도 다양해지며, 규범구조, 역할조직 등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의견, 다른 생활태도 등을 통합시키거나 일관성을 조성시키는 확실적인 제도의 조직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관계보다 조직체계에 더 민감한 교회형태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일 것이다.⁸⁾ 내적인 성장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했던 한국교회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의 질서를 강조하는 관료적인 교회형태를 띠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인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시하여 교인간의 공동체의식과 친밀성과 연대의식의 향상보다 교인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교인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런 경우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인식된다.⁹⁾ 이러한 교회는 렉 워렌의 표현처럼 자기 믿음을 간직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들로 차게 된다.¹⁰⁾

전형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교회들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동력화시키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그램, 교인들이 좋아 하는 행사에 집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제도권 교회들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으로 교회들 기업처럼 경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¹¹⁾ 이런 경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할지라도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재정과 외적인 힘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교인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영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동체성이 상실된 교회에는 단지 성장의 정체만이 아

7)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38.

8) 김병서, "교회공동체의 사회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307호, 1984년, 22.

9)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박영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6), 10.

10)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405.

11)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44.

나라 무지와 편견 그리고 개인주의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성장의 강력한 힘은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부흥도 예외가 아니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성령강림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부흥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행 1:4).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행 1:12-14). 그리고 유다들 대신 할 사도들 세우는 일에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맞디아들 세웠다(행 1:23-26). 이는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의견과 의지들 하나로 조정하고 모여 인정하고 협력하는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적 모습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과 무리들이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교회성장의 위기감을 느낀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주목하면서 한국교회 재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평양에서 역사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교회의 일련의 흐름을 주목해 보면 그 배경에는 당시 교회들의 공동체적 신앙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독교선교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으로 오직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기체적 교회 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교파를 초월해 한 가지 목적, 곧 한반도 복음화를 놓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집회를 갖고 전도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 됨으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회개운동으로 나타나며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¹²⁾ 한국교회부흥의 기폭점이 되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은 당시 선교사들의 능력이나 성도들의 신앙적 열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갈등이나 대립 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집회를 통하여 하나 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 난 것이다.

12)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4.

성령의 강한 역사와 복음의 부흥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선민사상과 이로 인한 공동체성의 파괴로 점차 관료화 되어 갔으며 결국 하나님은 복음의 깃발을 안디옥교회로 옮겨 갔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후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의 대형화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 가는 목회관 속에서 교회는 진정한 성도간의 인격적 교제가 어렵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적 요소인 신앙의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지는데 있다. 이로 인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이며 외적으로는 폐쇄적이어서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분열이 한때 교회 개체 수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의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으나 이는 시대적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적인 교회의 모습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재 부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들 해결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에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동체적 관계성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체적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는 존재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규모보다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 곧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게 하는 주체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교회성장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학문으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분야가 있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장을 위한 방법론이나 이론 보다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의 역사와 현장에 대한 진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안을 교회의 공동체성에서 찾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관찰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 적용할 공동체성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하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인천동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교회는 1952년 3월에 설립되어 54주년을 맞았다. 한때 1,000여명이 출석하던 교회였으나 현재는 250여명이 출석하며, 갈등과 분열의 심한 아픔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평신도 중심의 성경구락부 모임으로 출발하였던 교회는 담임교역자만 아홉 차례 바뀔 정도로 불안정한 교회가 되었다.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교회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공동체성의 상실에 있다. 하나교회는 전형적인 제도권적 교회에서 공동체적 교회로 전환하고자 한다. 개척목회가 아닌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부임한 목사가 교회운영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간단하거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교회의 전통에 익숙한 교인들의 고집과 목사의 목회적 열정이 충돌하면 교회는 더 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교인은 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한 경우 목사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 목사는 구시대 전통에 익숙하다 못해 진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앙의 옷을 갈아입게 하여 목회의 동역자 내지는 협력자가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담임목사의 확고한 목회신학이 있어야 하며,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교회는 주변지역의 약 80여 만 명이 도시개발지로 계획되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역할과 성장을 위한 목회전략의 기초를 교회의 공동체성에 두고, 갈등과 분열의 몸살을 심하게 앓아 온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자 한

다. 이들 통하여 하나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대한 선교명령에 충실하여 '크게, 많이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이들 위한 시급한 목회적 핵심과제들 교회공동체성 회복에 두고,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에 대한 교회공동체성의 관계들 바탕으로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교회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정리할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과 공동체성의 관계,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그리고 종말론적 언약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와 비교를 통하여 교회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종말론적 선교사명에 대한 교회공동체성의 관계성과 중요성을 정리할 것이다. 4장은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여 교회의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장은 하나교회의 역사와 교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공동체성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하나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회 신학과 비전들을 제시할 것이다. 6장에서는 하나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구성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가 지역민과의 공동체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7장 결론에서는 한국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개인주의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의 장기침체로 지치고 불안해진 일반인들에게 포용과 위로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져서 관료화 되었으며, 그런 교회가 일반인들에게는 이기적인 조직으로 비쳐진 점이 교회가 쇠퇴하는 주요인으로 정리하고, 교회가 성서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민과의 건강한 유대관계들 유지함으로써 교회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공동체들 비교 연구함으로써 하나교회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성서적인 공동체적 교회로 전환하며, 예상되는 지역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목회전략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과 분열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과 역할을 위한 목회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응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순수한 개념은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가치는 종교성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규모보다 성도간의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들 머리로 하여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고받는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성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들 이해할 때는 먼저 공동체적인 속성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적 속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 1 절 하나님의 본질과 공동체성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홀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신 6:4; 막 10:18; 고전 8:6; 딤후전 1:17; 2:5; 6:15)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복수로 소개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다. ‘한 분’으로 계시는 것만 주장한다면 성경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실제로 계시면서 하나됨 이루는 복수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¹³⁾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38-239.

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 됨 안에서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가 하나 되실 때 역동성과 상승작용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나 됨을 위한 공동체적 속성이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공동체적 속성을 부여하셨다.¹⁴⁾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여럿으로 만든 삼신론, 혹은 다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 인격체로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개별적 인격체들로 존재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존중하며 신뢰하면서 하나 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수용하시고 협력하시는 공동체적 존재이다.¹⁵⁾ 실제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의 권위들 위해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선포하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이 성자에게 임하신다(마 3:16). 당시 무명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권위로 인간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위험한 일이었다. 단순히 선지자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예수들 유대인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부정하고 위협하였으며, 결국은 예수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자 예수 혼자서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아들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돕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친히 임재하심을 보임으로 성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써 가지는 권위들 확인시켜 주었다.

성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해야 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자인 예수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사명이었다. 예수는 이런 자신의 죽음을 알았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르쳤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한 죽음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성자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다. 그의 진실한 고백은 이 죽음이 지나가는

14)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8), 17.

15)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41-242.

것이였다(마 26:39; 막 14:36; 눅 22:42).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지이다”며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자 예수의 순종을 위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은 성자들 돕는다(눅 22:43). 결국 성부의 뜻을 위해 성자가 순종하고 이들 성령이 돕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성령의 주된 사역의 때가 되었다. 성령의 때와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먼저 약속을 하셨고, 이들 성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들에게 선포하였다(행 1:4-5).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당부한다. 성령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여 간다. 결국 성령의 사역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예수가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서 수직적인 종속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됨이 하나님 존재의 본질로서 삼위의 각 위격은 ‘능력이 동등’하시므로 삼위의 활동과 기능에서도 하나 됨의 동등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세 위격 간에 계급이나 위계질서는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 의존적인 삼위일체의 하나 됨도 절대적이며,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곧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다.¹⁶⁾ 삼위의 일체적인 존재방식은 화평을 위한 모델로서 군림을 위한 견제나 갈등 그리고 대립은 있을 수 없으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협력하여 화평을 세워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다. 죄로 생명을 잃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의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최고의 선택인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최고의 방법인 삼위의 공동체적 사역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생명과 화평을 위한 모범을 보이셨다.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인격체들이 분명히 독자적으로 실존하면서 동시에 완벽

16) Bilezikian. *공동체*, 18.

하게 하나 되어 유기적인 관계성을 보이는 것은 서로 생각과 의지들 사랑 안에서 주고받음으로써 각각의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용납되고 이해되며 나뉘지게 되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들 받아들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인정되고 상호 주고받음으로써 순환하게 되어 성부의 생각은 이미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의 생각은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의 생각은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의 신비들 이해하려는 집착보다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신비들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이 수평적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의지하는 삶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협력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십자가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발견된다. 십자가를 지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통하여 성자가 성부들 위한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들 양보함으로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곧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 성격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¹⁸⁾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삼위의 존재성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의 하나 됨을 간절히 바라시고 기도하셨다(요 17:11, 22). 이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적 일체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또한 공동체적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체적 삶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자 예수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며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요 17:14-17, 21-22). 그러므로 공동체적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화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1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51.

18) Ibid., 240.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들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들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의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5-26).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무리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공동체적 영향력을 세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 2 절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내건 교회개혁의 구호는 라틴어로 ‘communio Sanctorum’이란 말이었다.¹⁹⁾ 영어로 번역하면 ‘communion of the Saints’ 즉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언급할 때 ‘성도의 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그들도 역시 교회란 ‘성도의 교통’이라 고백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정의된다. 교회의 본질을 포괄하는 전통적인 용어는 ‘성도의 교통’이었다.²⁰⁾

‘성도의 교통’의 의미는 그리스도들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란 뜻이다. ‘교통’이란 말인 ‘communion’은 헬라어 ‘koinonia’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공동체(community)의 어원이다. 결국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모임인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의 본질로서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들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도덕성 때문이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완벽한 제도나 조직의 위력 때문에 성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성장의 원인은 교아나 과부, 나그네, 노예, 빈자든 하등 관계없이 인정되

19) Louis Berkhof, *조직신학*,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9), 23.

20)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35.

었던 '형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의식이 그들을 결속시켰고 또한 그러한 삶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었고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적 사랑의 힘으로 품어 안은 것이다.²¹⁾ 성령의 충만과 역사들 통해 공동체로 성장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력과 화평이 충만하여 모든 이들의 차별이 없었으며, 기쁨과 사랑이 넘쳤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행 2:43-47). 공동체의 각 지체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지체는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체에 의존하고 있다(고전 12:14-21). 그리고 덜 귀해 보이는 섬김을 수행하는 지체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전 12:22-25). 또한 공동체 안에는 각자가 다른 지체와 일체가 될 수 있는 공동된 생명이 있다(고전 12:26). 이처럼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력과 성장력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섬김이 비례하며 구성원간의 화평과 사랑이 커지므로 강한 성장력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교회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열정은 강했지만 교회의 대립은 비례해서 심각하였다. 고린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들 교리적으로 어지럽히는 이단문제에 대한 해결만큼이나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들 완전히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었고(고전 12:12), 공동체들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한다(고전 12:27).²²⁾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양성 속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한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롬 12:5)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가 공동체 연합의 근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유의 변화는 '공동체가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였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보다 주도적인 연합의 원천'임을 밝히고 있다.²³⁾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주장이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구

21) 심창섭, "공동체운동의 교회사적 조명," *신학지남*, 226호, 90

22) Robert John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105-107.

23) Ibid., 108-113.

성원인 교인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는 존재여야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공동체를 강조한 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은사적 기능성에 집착함으로 분파적 힘겨루기로 나타난 차별과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고린도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질적 등급을 기준으로 신도들 간에 차별과 멸시가 생기는데서 바울은 약한 자와 변변치 못한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²⁴⁾ 어느 공동체에서나 약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약자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공동체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나 무리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지체로서 그리스도적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명분으로도 차별이나 소외나 멸시받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누구도 하찮은 존재는 없으므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들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역할이다.

이들 위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공동체적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엡 5:22-32).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존재적 관계의 중요성만큼 교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들 위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전념해야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들 사랑하셨고 교회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몸을 바치셨다. 교회가 그리스도들 사랑하시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시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24) 김창락, *새로운 성서해석과 해방의 실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18.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 즉 몸의 구원자’이시다.²⁵⁾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성찬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 예식을 세상 끝날 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눅 22:19).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그 뜻을 잊지 말고 서로들 위하여 그리스도적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실제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으로 결합된다. 주의 몸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한 몸이 되고 공동체 자신이 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믿으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주의 만찬에서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²⁶⁾ 이것은 일시적인 책임이나 명령이 아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창조물이며, 성령의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사 공동체였다. 이러한 초기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교안한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을 이해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성의 성격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²⁷⁾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적 사랑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아울러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다. 이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들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과 교회들 통하여 성취하신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었다(행 2:43-47; 4:32-35).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과 그리고 흠어지지 말고

25) 박근원,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1988), 49.

26) 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146.

27) J.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박봉일 외 4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312.

하나 되라는 것이었다(행 1:4).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령은 먼저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모인 무리들을 동일한 은혜들 체험케 함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사명 곧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순교적 섬김의 자세로 하나 되게 하였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각자의 주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하계 하심을 따라 오직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이것은 성령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보여 지며 성령의 중재 없이 공동체의 하나 됨은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성령은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며 사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전도 여행을 보내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이 된다.²⁸⁾

교회 공동체들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온전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권력 혹은 규모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 통한 그리스도적인 삶을 요구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형상은 공동체적 삶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생활의 다른 측면들 속에도 존재하지만, 공동체의 초점은 오직 현세에서 인간교회의 최고의 형태인 교회들 통해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들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반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며, 이는 곧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들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 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반영하게 된다.²⁹⁾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의 욕심이

28) 오영석, *조직신학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82.

29)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들 위한 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75-276.

이들 파괴하였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물론이고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과의 부조화로 결국 절망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잃어버린 인간의 공동체적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영원한 목적을 갖게 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의 완전한 선포와 성취를 이룰 도구로 교회들 선택하셨음을 바울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엡 1:9-10; 4:10, 15-20).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다.³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는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문제는 의식주 문제나 이 세상의 명예나 부, 또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이었다. 이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동체적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훈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교훈 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일치들 향하는 중에 서로 돕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올바른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³¹⁾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들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인 것이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³²⁾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적 의식이나 교인의 수 혹은 단순한 신앙집단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적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런 은혜의 축복을 세상에 확대해 가도록 헌신하여야 한다.

30)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138.

31)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4.

32)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139.

제 3 절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신약에서 교회들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는 동사 ‘칼레오’(kaleo, ‘부르다’)와 전치사 ‘에크’(ek, ‘-로부터’)가 결합해서 생겨났다. 이는 “불러내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신약의 교회는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신약의 신자들이 교회들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것이다(고후 6:16).

교회는 언약의 백성이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선포들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언약관계 속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교회라는 개념보다 더 넓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피조된 만유와 아울러 내세의 영역도 포괄하는 하나님의 영토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한다. 이와는 다르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생겨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포들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며, 하나님 동치의 선포에 대한 순종적 응답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님 나라의 산물이다. 성령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 선포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장래의 동치들 현재에 있어서 인정하는 무리로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들 탄생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말론적 집단’으로서 말과 행위들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 우주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동치들 증언하는 자들의 집단이다.³³⁾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양 떼의 무리 속으로 데려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완성 때에 도래하게 될 영광스러

33)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들 위한 신학*, 685.

은 인간의 공동체들 현재에 있어서 형성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조물들에게 주실 종말론적 현실의 맛보기인 셈이다.³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워진 피조 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화해된 공동체들 원하신다(엡 2:14-19).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공동체들 지향하고 있고, 공동체 속에서 성취된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구원받은 개개인들의 집합을 훨씬 뛰어 넘는 구원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소유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기초가 되며, 성령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촉매자 역할을 한다. 성령은 교회가 공유하는 언약의 토대들 이루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분이다(고전 12:3).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 자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적인 교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신자들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공동체성이다. 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화해의 공동체로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이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들 보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들 부르셔서 삼위일체적 본성인 사랑의 공동체적 삶을 현세에 더욱 크게 확장하기를 요구하신다.³⁵⁾

하나님의 의도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서로서로에 대하여 화해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다(엡2:11-22). 이

34)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들 위한 신학*, 687.

35) Ibid., 692.

러한 공동체에 대한 궁극적인 체험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겠지만, 성령은 지금 인간의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백성을 하나의 몸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들 대표하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갈 3:28). 그러므로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은 오직 인간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온전한 모습으로 출현하게 될 종말론적 공동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⁶⁾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형상의 현현인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교회들 통하여 종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 통하여 성도는 육욕을 넘어서 영적인 은혜들 만끽하여 이들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증거 하여 그 지경을 넓혀 가야할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 교회는 존재의 목적 보다 영적 생명력과 확장성을 통하여 종말을 향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역사의 끝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자주 가르치셨다. 예들 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예언 하셨다(요 5:25).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일회적 사건 즉 갱신된 공동체로서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우주적인 집회로 묘사하셨다(마 13:47-49; 24:30-31; 요 5:28-29).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기를 죽은 후에 단지 개별적으로 천국으로 날아가서 진주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영원한 세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 세계로부터 하늘나라로의 대규모 이주가 되리라는 것이다.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호령과 승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신자들과 살아 있는 모든 신자들이 모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살전 4:15-17).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한 몸 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³⁷⁾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인 천국은 신비한 구조나 물질의 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화평의 은혜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36)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690.

37) Bilezikian. *공동체*. 43.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현세에 성취된 언약공동체이지만 그 목적은 현세들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이들 위해 성자 예수께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계획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들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으며, 그때까지 현세의 고난을 이겨야 하는 교회들을 성령께서 몰봄의 은혜와 은사로 도우신다. 현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유혹으로 도전하는 악의 세력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는 포효하는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축하한다(계19:6-9). 그리고 현재의 하늘과 바다와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며 현세에서 겪는 인간의 모든 고난은 없어지고 매우 아름다운 새 세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무가치한 것으로 퇴색된다. 이 새로운 종말의 실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며 거룩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계21:2). 이 새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들 나타낸다(계21:3).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 됨의 공동체이다.³⁸⁾

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이며, 이 하나님 나라는 새 창조물인 교회들 통하여 성취된다. 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로서 그분의 몰보심으로 영원한 평화들 누린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묘사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빌지키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⁹⁾ 첫째, 성의 장식을 아주 찬란하게 묘사하고 있는 데, 이는 교회들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시대로부터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을 모으셔서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들 드러낼 사람들을 부르는 데 쓰신다. 둘째, 죄의 오염 때문에 이 우주는 소멸되며, 하늘과 땅이 떠나가고 옛 질서는 새 질서로 대체될 것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꿈꾸어 오신 공동체, 바로 교회이다. 셋째, 하나님이 역사 전체들 통해서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역사의 종국에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교회 공동체만이

38) Bilezikian, *공동체*, 45.

39) Ibid., 48-49.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공동체 건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꿈이며, 역사들 통해 추구해 오셨고 인류의 마지막 까지 계속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 하나님은 이 목적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으로 이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모욕과 고난과 죽음의 희생하시면서 까지 노력하셨고, 목적을 위한 열정과 인간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꿈은 교회가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구속의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구세주의 품에 안겨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로서 연합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고 교회들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에서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관습을 점검하여 성경적이며 참된 공동체적 요소들로 대체하여 그리스도들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들 세워 가는 것이다.⁴⁰⁾

예수님은 공동체적 종말의 신앙을 ‘거듭남’으로 설명하였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도 없다(요 3:3, 5)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공동체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빌 2:5)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2-4)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 비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소개하였다(빌 2:7-8).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여 종말을 준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종말신앙이다. 종말이라는 것은 현세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현세와 내세로 구성되는데, 이 두

40) Bilezikian, *공동체*, 50.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현세는 내세들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직한 현세는 영화로운 내세들 보장해 주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에 대한 간절한 소망만큼이나 현세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종말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로서 교회이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을 위한 교제 공동체이다. 이런 교회들 통해서 세상은 종말에 대한 소망을 배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미래의 종말을 향한 소망으로 나간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종말신앙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진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로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소개되고 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교회이기도 하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으나 이기적인 제도권적 교회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교회를 대신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교회는 존재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역할로서의 가치성을 가져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을 비교연구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비교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성령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살펴보면 성령이 먼저 각 개인에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들 받은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가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행 1:12-14),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시어(행 2:1-4) 복음의 불길이 강하게 번져갔으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주도된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이방인교회로서 세계를 향한 전초기지로서의 교회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의한 것이었다. 안디옥교회의 성령의 역사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났었다(행 13:1).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에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제 1 절 예루살렘교회의 공동체성

예루살렘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취로 세워진 공동체적 교회이다. 예루살렘교회에 주어진 목적은 땅 끝까지 예수의 종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행 1:8).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이 이루어 졌다. 예루살렘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었다. 이는 믿는 자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부흥하는 천국 공동체였다(행 2:47).

1. 예루살렘교회의 설립배경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이후 낙심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불러 모으셨고, 승천하기 직전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들의 신분들 드러낼 수 없었다. 막강한 영적 권세로 세상의 주목을 받던 예수님의 그늘에서 한 가닥의 소망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을 넘어서 삶의 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승천하셨고, 남겨진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행 1:4-5)는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동일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건 기도였다(행 1:14). 이 기도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와 비제자의 구별이 없었다(행 1:13-14). 모두가 더불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마침내 오순절 날에도 이들의 기도모임은 계속 되었고, 드디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게 임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행 1:8) 대로 복음증거들 위해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피하던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거리에서 예수들 증거 하기 시작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행 2:37).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들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들 형성하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갔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전 지역을 복음화 하여 갔다.

사도행전 2장 40-47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예루살렘교회는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였다(행 2:40-41; 4:29-31; 5:42).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뜨거운 전도열기로 충만하였다. 박해로 인해 소심하고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전도들 통하여 3000명(행 2:41), 5000명(행 4:4)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 왔으며, 온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

도했고 그 결과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행 4:23-31).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신자라는 직분 외에는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않았던 남녀들이 열성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평신도들은 온갖 종류의 야기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에 굴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⁴¹⁾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에는 오순절의 성령강림이 있었다. 이 성령강림은 단일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역사의 흐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에 의한 사건인 것이다. 오순절 사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사적 역사의 한 단계로써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신 역사적 사실을 뜻한다.⁴²⁾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구속역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기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구속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절정이라 할 수 있다.⁴³⁾ 동시에 오순절은 하나의 독립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사건과 구속사에 있어서 연속된 사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⁴⁴⁾

오순절 사건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사건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행 1:8). 이렇게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생명을 건 열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 했고, 그 결과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먼저 시작한 기도 모임이 있었으며, 그 기도 모임은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다(행 1:14). 만약 이들이 뜻이 달라서 따로 모여 기도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생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同心)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41) J. H. Bavinck,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59.

42)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1), 56.

43) 이인한, *오순절과 성령의 세계* (서울: 은혜출판사, 1979), 35.

44) 박형룡, *사도행전 주석* (서울: 영음사, 1973), 42.

라”(마 18:19)고 하시면서 하나 됨을 먼저 강조하셨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하나 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림과 역사가 있었으며, 이로써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들이 먼저 하나 된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작은 제자 공동체들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예루살렘교회 공동체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갔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의 확장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연속성을 가지며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결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본질이 곧 공동체적이므로 교회들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 또한 공동체들 통한 역사는 당연한 것이다.

2.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인데 이 말에는 일상적인 삶을 깊이 나누는 의미가 있다.⁴⁵⁾ 예루살렘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되어 가족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행 2:42). 이런 교제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교회의 성장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⁴⁶⁾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집한 것, 그의 지상 사역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명 등이었다(행 2:22-36; 3:11-26; 4:8-12). 이것은 곧 교회가 가지는 복음의 본질이요 전통이 되었다.

예루살렘교회의 교제는 단순한 오락이나 친교들 위한 교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모인 이들이 함께 나누며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다. 예루살렘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적인 상태일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는 생활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환희에 넘쳐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극히 상송된 사

45) 이재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35.

46) Everett F. Harrison,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23.

량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으며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행 2:47; 5:13).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동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행 2:47).

이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은 실제의 생활로 확장되어 갔다. 예루살렘교회의 교제는 실제적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이다.⁴⁷⁾ 교회공동체는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횡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일치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한 식구처럼 모든 물건을 공용하면서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들 공유하고 이들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교제를 통한 실질적인 삶의 공동체이다.

3. 기도하는 공동체

예루살렘교회는 기도와 모이기를 힘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행 2:1-4, 42, 46; 4:31).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그 결과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생활의 연속이었다. 사도들은 기도시간을 정해 놓고 성전을 찾았으며(행 3:1; 10:9), 교인들의 안전과 축복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실로 예루살렘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었으며⁴⁸⁾ 이 기도들 통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행 4:29-31).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행 2:46), 이들은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교회는 증거 및 전도에 관해서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 날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아 왔고, 날마다 집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가졌으며,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었다.⁴⁹⁾ 예루살렘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다(행 2:43; 5:12; 6:8). 이들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

47) 이상근, *신약주해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60.

48) W. S. Mcbirnie, *초대교회연구*, 박만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34.

49) Ibid., 36.

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의 무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⁵⁰⁾ 주로 기독교공동체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⁵¹⁾.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들 통하여 이미 믿은 자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졌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들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편이 되었으며(행 3:1-4:4),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그들의 지도권을 확립해 주었고, 그 지도권이 초대 교회 건설의 비결이었다.⁵²⁾

예루살렘교회 공동체는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 일심으로 기도했고(행 4:24), 이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행 4:29), 기도에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행 4:31).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인 기쁨만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들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들 나누는 공동체였다. 이 기도들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주된 사명이 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4. 나누는 공동체

예루살렘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행 2:44-45; 4:32). 성령강림을 기화로 한 영적 변화는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공동체적 유무상통의 삶으로 승화되는 결과들 낳았다. 모든 물건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소유처럼 사용되었고⁵³⁾, 그들의 모든 재산은 그것이 필요할 때에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⁵⁴⁾ 그리고 물질의 교제는 물질의 통용방식으로 발전하였으나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유무상통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긴급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지 영구적인 특징이나 원칙은 아니었다. 그러나 물질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섬기는 기독교적 공동체적 교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실행되어

50) Henry Alford's, *사도행전*, 신약원어주석 vol. 8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4), 160.

51) E. Haenchen, *사도행전*, 국제성서주석 33-1, 이선희,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307.

52) 이상근, *신약성서주해 5: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1979), 61.

53) Alford's, *사도행전*, 160.

54) A. T. Robertson, *사도행전*, 신약원어대해설 3, 로버트슨번역위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85), 66.

은 것은 사실이다.⁵⁵⁾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교회 무리들에 대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행1:14), “일심으로”(행 4:24),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행 4:32) 등의 표현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이 모아진 공동체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 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 된 무리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다(행 2:42-46; 4:32-35).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신비한 광경이었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행 2:47).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행 4:33).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나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실현해 간 것이다.

제 2 절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교회가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을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교회로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 안디옥교회의 설립배경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시작된 교회이다(행 11:19-21).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원근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행 8:1-4), 이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 중에는 멀리 베니게, 구브로, 시리아의 안디옥까

55) W. S. Mcbirnie, *초대교회연구*, 박만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34-35.

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행 11:19).⁵⁶⁾

흩어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였고(행 11:19-20),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변화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교회는 교회지도들 위해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당시 예루살렘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는 못했다. 아마 예루살렘교회가 발 빠르게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이방인교회에 대한 지배와 감독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당부와 열정을 쏟는다. 그 결과 안디옥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게 된다. 바울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반역자로 몰렸으며, 예루살렘교회는 아직 그들 의심하고 있었기에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였다. 바울을 안디옥을 데려온 바나바는 일 년간 동역하였는데, 교회는 더욱 안정되고 성장하여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안디옥교회의 설립배경에는 스테반의 순교사건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으며,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헬라인들이 믿게 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행 11:21).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가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공동체적인 분이시다.

안디옥에서 이처럼 회당에 출입해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최초의 교회가 되었으며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입구에 위치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제국의 전역과 연계되어 있었던 만큼 이방 세계로 뻗어 가 고자 할 때 선교 전략기지가 될 수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확장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최초의 교회였으며, 교회 확장의 새로운 무대의 시작으로 등장한다.⁵⁷⁾

56) 이대섭,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서울: 성광문화사, 1986), 198.

57) 신내리, *초대교회 100년 성장사*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2), 33.

2. 교육하는 공동체

안디옥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이다(행 11:26).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χριστιανος)인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 사실 이 말의 용처는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안디옥교회의 신자들을 비방하거나 비하하여 부들 때 사용한 것이다. 그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안디옥교회 신자들이 안디옥의 문화들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디옥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신앙교육의 좋은 열매이다(행 11:26).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였다(행 11:25-26).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교인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구약성서에 무지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문화적 차이와 사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했을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려 왔으며 들이서 1년간 가르쳤던 것이다(행 11:25).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있었다(행 13:1).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되도록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한 교회였다.

안디옥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보편적인 문화들 거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해진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운 신앙문화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교회 신자들의 생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모방할 수 없는 교회본질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만큼 안디옥교회가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공동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선교하는 공동체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였다(행 13:1-3). 예루살렘 교회가 주관적인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은 안

58) Harrison,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337-338.

디옥교회들 선택하여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안디옥 교회들 통하여 교회의 시작과 역할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함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들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낌없이 순종하였다(행 13:1-3).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선교들 당연한 것으로 알았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희생적인 신앙으로 전도했고, 교회들 개척하며 교회들 섬겼다.⁵⁹⁾ 이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었다.⁶⁰⁾

안디옥교회가 이방선교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지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안디옥은 동쪽으로 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가 놓여 있고 로마에서 안디옥까지는 육로여행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아라비아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안디옥을 통과해야만 했다. 안디옥은 교통의 요지였으며 예루살렘교회와 친밀한 연락관계들 맺을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활동의 본거지가 되어 그의 유명한 세 차례의 선교여행이 항상 안디옥에서 시작하고(행 13:4; 15:40; 18:23) 다시 이곳으로 돌아옴으로써 자신의 선교여행을 마치는 것을 보아도 안디옥이 이방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들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는 사실이다(행 13:2-3). 성령을 통한 선교명령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세계복음화의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었고, 구약에서부터 구상하셨던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비로소 펼쳐지게 된 것이다.⁶¹⁾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선교명령을 받았을 때 교회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안디옥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리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가 순종한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

59) 이개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52.

60) 마이클 그린,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12.

61) 배운호, "안디옥교회의 모범," *미션월드*, 1992년 2-3월호, 46-49.

장 대표적이고 시급한 것이 선교임을 알 수 있다.⁶²⁾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 명령을 받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받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 한 후에 선교사들 파송했다는 사실이다.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였으며, 교회가 선교적 사명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교공동체였다.

4. 다양성의 공동체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는 달리 그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혼합형의 교회였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신분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디옥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되고 있다(행 13:1). ‘니게르(Niger: 검은 피부)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으로 동아프리카 출신의 나일강 유역 주민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들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⁶³⁾ 분명한 것은 그가 흑인이었으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람이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마나엔은 예루살렘의 지배계급 출신이었으며, 루기오는 출신지만 알려진 무명의 사람이었으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외지인이었으며, 바울은 수치스런 과거의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들 이루었다. 안디옥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이방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특징이며 자랑이었다.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던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신분 그리고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였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교회는 최우선으로 순종하며 서로 협력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안디옥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62) 박광현,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9.

63) 이개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77.

하나 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영육의 공동체였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공동체인 동시에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들 증거 하는 선교공동체였다.

제 3 절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 비교

예루살렘교회가 초기기독교의 모태라고 한다면 안디옥교회는 먼 지방의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규모나 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안디옥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교회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세워져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직계 제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 이에 비해 안디옥교회는 이름 없는 전도인으로 시작되어 예루살렘교회에서 목회자들 파송 받아야 할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다.

사도행전에 전개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는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교회는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부흥의 진원지로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꺾박으로 교회는 흩어지고 쇠약해지나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 후반의 전체의 중심지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선교 즉 세계를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순교적인 전도와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교회들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셨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성령강림사건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성령강림의 목적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서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공동체적 교회로서 후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역과 국가와 혈연과 민족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행1:8)고 하셨으나 예루살렘교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계속해서 성전과 유대들 갖고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했다.⁶⁴⁾ 이들은 성령강림의 근본적인 목적

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선민사상에 사로 잡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이런 이기적인 열정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감소시켰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에 대한 핍박을 수단으로 하여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교회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 결과 이방선교의 기지가 된 안디옥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만약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고착되어 유대인의 보수적, 전통적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가 복음의 생명력이 감퇴되어 결국 기독교는 팔레스틴의 한 구석에서 매장되고 말았을지 모른다.⁶⁴⁾

또한 예루살렘교회는 구제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행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은 교회의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스테반의 순교사건이 생겨나고 결국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다. 그 후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관료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간다. 바울이 예루살렘교회들 방문했을 때 흥분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며(행 21:27-31),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력을 잃은 채 정치적인 형식의 협상을 통하여 교회들 지키려는 전형적인 관료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행 21:17-24).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없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집착이 교회들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들 주장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교회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강박한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립의 경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협상으로 진리들 규정하게 되며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게 된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성이 사라진 예루살렘교회는 수만 명의 신자들 가진 거대한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되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안디옥교회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여 섬김과 협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64) J. Hevert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17.

65) 김현순, *해설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14.

보여 주고 있다(행 13:1-3).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안디옥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부스리기 복음을 통하여 시작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역사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안디옥교회가 교회주의(Churchism)만 주장하여 예루살렘교회처럼 모이는 교회(the church gathered)만 강조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타 문화권선교(cross-church mission)를 위해 선교하는 선교공동체(the mission community)가 되어야함을 분명히 했다.⁶⁶⁾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디옥교회가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신분들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하나 되었고,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선교명령에 하나 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영과 육의 공동체였는데 반해서 예루살렘교회는 처음의 교회 공동체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편견과 독선의 제도권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성이 사라진 예루살렘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 홀으시고, 온전한 신앙공동체들 이룬 안디옥교회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동역하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로서 그 꿈도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꿈이며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의 사명이며 감당해야할 역할이다. 예루살렘교회는 선민에 대한 신학적 오류로 이를 거부했으나 안디옥교회는 온 교인이 함께 금식과 기도로 순종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들 세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교회들 통하여 역사하시며 선교신앙을 가진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6) 이개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75.

제 4 장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다. 안타깝게도 오늘에 와서 한국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후퇴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생명공동체이므로 건강하다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서적인 관점에서 진단해야 할 것이다. 앞장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부흥했으나 결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디옥교회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으나 예루살렘교회는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스스로 홀으셨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점을 주목하여 냉철하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과 개혁을 위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일과 양적성장에만 집착해왔다. 그 결과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분열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열정에 힘입어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에 대해서는 크게 외치나 예수의 삶은 없고, 교회의 수는 많으나 천국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이음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성과 한국교회 재 부흥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부흥하던 초기 예루살렘교회처럼, 하나님의 선교명령에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공동체로서 금식과 기도로 순종하던 안디옥교회처럼 새로워지길 소망하며, 이들 위한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진단과 방안을 찾아본다.

제 1 절 문화의 고집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독특한 유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좀처럼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신학적인 무지 때문도 아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형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문상 교수는 문화적인 이유에서 그 근본을 찾고 있다⁶⁷⁾. 무속신앙의 가족중심의 현세적 기복신앙이 배타적 가족이기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생존본능의 차원에서 ‘배타적 우리’의식을 자라게 하였으며, 유교의 일방적 권위주의적 질서가 ‘집단 이기주의 세계관’을 확고하게 심어 놓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폐쇄적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대화 보다는 소속된 집단의 일방적 가치들 따름으로서 열린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 실례로 교회의 갈등의 현장에서 지식인임에도 진리와 비 진리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유보한 채 소속된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족과 친척의 혈연중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교회일수록 개인의 의견보다는 어른의 의견에 무작정 따름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객관성을 잃고 편협한 사고에 지배를 받게 되기 쉽다. 교회가 갈등으로 균형을 잃게 되면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악화되거나 분열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폐쇄적 가족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권위주의와 서열 문화가 다른 사람이나 타 집단에 대한 이해부족, 비합리적 연줄 문화, 대화와 토론 문화를 불가능하게 한다.⁶⁸⁾ 여기에 편협된 신앙의 열정이 더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마치 순교적인 각오로 대립

67)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76-77.

68) Ibid., 66.

을 정당화 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 예배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고 들으면서 갈등의 끝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진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리들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자신들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어려워지며, 해결 또한 어려워진다.

권문상은 이들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형 교회들 제시한다.⁶⁹⁾ 이는 초대교회와 서구형 가정교회와는 구별되는 한국문화에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교회 안에서 소수의 가정이 자발적으로 분화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회의 지도 체계와 수평적 구도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들 맺는 것이다. 가족교회는 영적, 공동체적 교계들 통해 각 가정들을 형제자매로 여겨 한 가족을 이루면서 상부상조, 상호 의존의 관계들 심화시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사회적 본연의 의지들 가족의식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들 통해서 '우리'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 소속감을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족교회들 통하여 각 가정은 서로가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께차 몰보며 교계해 서로들 세워 나가는 것이다.

가족형의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또 다른 문제들 일으킬 수 있다. 소그룹 공동체 간의 대립이 생겨날 수 있고, 잘못될 경우 분쟁을 일으키는 패거리가 될 수 있다. 이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개인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우 공동체성을 상실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보기 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 사고로 접근하게 되며,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일방적으로 동조하게 되어 교회의 심각한 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초부터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지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계도들 만드시고 명령하셨다. 오

69)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79-289.

늘의 하나님 백성 된 성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근원을 하나님의 본질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각각 서로를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⁷⁰⁾ 그래서 성자와 성령 없는 성부는 있을 수 없으며, 성부와 성령 없는 성자도 있을 수 없고, 성부와 성자 없는 성령도 있을 수 없다. 삼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과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⁷¹⁾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들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잃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이기성을 지키기 위해 점점 강폭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하고 패괴(悖壞)와 강포(強暴)가 충만해서였다(창 6:2, 11).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구성원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연히 서로 아름다운 유기적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다.⁷²⁾ 이들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들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들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 지경을 넓혀 가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인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며, 공동체들 세우고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수록 가족형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70)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38.

71) Ibid., 247.

72) Ibid., 257.

제 2 절 성장의 유혹을 넘어서

1960년대 이후에 교회는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한국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점차 교회 내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세속적 가치관에 편승한 변형 신학적 성공주의가 크게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그 본질과 정체성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실의 결과물로서 외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대교회주의 목회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장지상주의적 교회 형태는 한국의 사회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⁷³⁾ 한국사회가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거품 성장이었으며 그 결과로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도 교회의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 현재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근자에 한국교회는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의 재 부흥을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교회의 재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 가는 목회관 속에서 교회는 진정한 성도간의 인격적 교제는 어렵게 되었고, 공동체적 삶을 통한 사회구원보다는 개인구원에 치우쳐 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게 형성되어 교회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인 공동체성이 희박해 지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공동체적 교제가 약화되고 교회는 관료화 되어 왔다. 어느 집단이든지 그 규모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집단원간의 의견일치가 어려워지고 결국 생활 양태도 다양해지며, 규범 구조 역할 조직 등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국 친교보다는 조직에 더 민감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⁷⁴⁾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된 원인을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편승한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구원의 공동체적 요소들 강조하지 못하고 변형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성장 일변도의 강조, 개 교회 만능주의, 그리고 개인 축복의 장으로서의 교회만을 강조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공동체성 상실의 원인이 교회의 대형화에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반적인

73) 전호진,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3), 288.

74) 김병서, "교회 공동체의 사회학적 이해," 22.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형화된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교회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집착을 버린 것은 아니다. 대형교회든 중형 그리고 소형 교회이든 교회의 본질적인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성서적인 가치관과 보여주는 삶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쫓아 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들 비판한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까지도 교회들이 탈하는 현상이 많아 졌다.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된 폐쇄적인 교회들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연이 아니다.

제 3 절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열정보다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고, 대형교회는 복음을 위한 사업은 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들 통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 근자에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은 반가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중에서도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성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구역이나 남녀선교회 등의 활동들이 있었으나 실상은 관리와 사업을 위한 관료적인 조직이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에 소그룹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나 이보다 먼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책임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한 가운데는 교회 지도자의 몫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목회스타일과 권력지향적인 장로들의 총몰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책임성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적인 목양보다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대형화들 최고의 목표로 하여 이들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진정한 성도간의 인격적 교제는 어렵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인 신앙의 공동체성은 점점 희박해 지게 되었다.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성공지향적인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구원의 공동체적 요소들 강조하지 못한 채 변영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성장 일변도의 강조와 개 교회 만능주의 내지 개인 축복의 장으로서의 교회만을 강조함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과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⁷⁵⁾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은 성장 중심이었다.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급속성장은 한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들 목전에 두고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정립되어가는 이때에 구시대 패러다임인 '성장'으로는 교회의 생존을 약속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이 고대 농경사회이다. 농경사회의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을 정보사회인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⁷⁶⁾

과거 우리사회는 유교적 전통 하에서 개인의 권리와 역할보다는 집단적 권위와 전통이 우선하는 통제성이 강한 사회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에서도 교리와 신앙적 권위에 의존한 교회운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권리와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이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고 따르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실 있는 목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왜 소그룹이어야 하나? 인간은 본래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본질로 창조하신 결과이며, 이런 공동체적 친밀한 관계성을 높이는 데는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⁷⁷⁾ 한국교회에도 소그룹이 전혀 없는 것

75)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공동체 운동*, 13-14.

76)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3.

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역조직'과 '남여전도회'로서 거의 모든 교회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내려오던 교회조직으로서 그 역할과 활동에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역은 그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예배와 헌금 그리고 교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목회적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소그룹의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도회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임원을 세우는 것이나 회비를 정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자율성을 띠지만 공동체적 교제와 구성원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약하고 전도사업을 위한 목적만이 강조되어 심한 경우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나치게 사업에 치중할 경우 구성원의 개인 간의 경제적 혹은 기능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생기고 약한 자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성서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심한 경우 개인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문화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유교문화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남녀의 구별이 분명했고, 이로 인해 부부 혹은 가족보다는 교회조직이 우선했었다. 그래서 마치 교회들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형식이였다. 실제로 설교자는 교회들 위해 충성할수록 큰 복을 받는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공동체적 관계들 통해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게 하고, 세상을 향해 그 영역을 확장해 가게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종교적인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공동체적 관계들 통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들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소그룹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부부와 가족중심의 가치들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따라서 교회가 공동체적 관계성을 극대화 하고,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소그룹인 가족 교회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족교회는 기존의 교회 안에서 소수의 가정의 자발적으로 분화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교회의 지도 체계와 수평적 구도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들 맺는 공동체이다.

77)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82.

제 4 절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성희 목사는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풍요로 우리 사회는 일회성 문화와 이동성의 발달로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가 크게 퇴조하고 자연히 교회연합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성장과 쇠퇴는 한국교회의 공동 운명이며, 교회가 쇠퇴한다면 모든 교회가 쇠퇴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이므로 교회연합은 한국교회 전체가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⁷⁸⁾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한 교회들이 서로 공동체적 관계성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부상조함으로 상호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의 연합을 통한 유기적 관계는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할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계속해 오면서 많은 교단이 존재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회와 단절된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만큼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공동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을 무시하는 집단주의는 안 된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성이 무시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며, 유일하고 독특하게 피조된 개별적 인간성을 중시하여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서 “개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을 지향해 나가는 모습이기도 하다.⁷⁹⁾ 공동체에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무시된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함으로서 공동체는 시작된다. 한 개인으로서 완성된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받는 나눔과 섬김의 자세에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⁸⁰⁾

교회연합에 있어서도 개교회는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개교회의 독립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크게 기

78)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40.

79)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45에서 개인용.

80) Ibid., 46.

여했고, 성도들의 교회들 향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성을 넘어 폐쇄성과 독선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교회연합을 무시하는 개교회주의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된다. 이런 개교회주의의 지나친 성장경쟁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폐쇄적인 독선으로 사회와 담을 쌓게 되며,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질감으로 교회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치러지는 부활절새벽연합예배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은 어느 절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부활절 예배도 매우 중요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아름다운 하나 된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의 부재와 개교회주의로 나타난 부끄러운 현상이다.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시급한 예들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행정력과 선교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⁸¹⁾ 흔히 각 종교의 대표들 논할 때 불교나 천주교, 그 외의 민속종교도 대표성이 분명한 인물을 내세우는데 개신교에는 대표자가 없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도 종교 지도자와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신교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도 현재의 개 교회 그리고 교단별로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비효율성과 선교현지에서 발생하는 선교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피해들에 있어서 결국 모든 교단들이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미래들 위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관심을 확대하고 공동체와 연합성을 회복시켜나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들 향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나누어져 오랫동안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교회들은 개인의 구원과 종말적 신앙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의 현실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진보성향의 교회는 사회운동 자

8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40-41.

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보아 서로가 냉소적이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을 증거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든 문제들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앞장 서야 한다. 82)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신앙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랜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집단이기주의 의식이 강하고, 사회의 변화로 개인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의 일반화로 기독교인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은 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넘어 공동체성과 개방성을 확대해가는 노력을 모아야 하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유교적 전통을 극복하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목회적 가치를 전환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개교회들이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일치와 연합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과 교회연합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한국사회가 교회들 다시 주목하게 되며,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82)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246.

제 5 장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전략

지금까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중요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과 안디옥교의 공동체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이제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제 1 절 하나교회의 역사

하나교회는 1952년 3월 1일 16명의 교우들이 모여 성경구락부를 설립하고 집회들 갖다가 용현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들 설립하였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천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가까운 황해도에서 배들 타고 내려온 이들이 많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자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교인이 증가하고 그해 8월에 황해노회로 가입하면서 인천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 하여 인천 제7교회로 개칭하였다. 인천에는 제1교회부터 제8교회까지 세워졌는데, 현재는 제일, 제이, 제삼교회만 있고 나머지는 개명하였다.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성장하여 1956년 2월 3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팔복교회들 지교회로 설립해 분가케 하였다. 그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1968년 4월 경인고속도로건설로 인하여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인 용현2동 489번지 260평 대지에 연건평 212평 예배당건물과 사택을 건축하여 이전하였다. 70년대 중후반에는 교회가 급성장하여 약 1000여명의 출석교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내의 갈등과 분열로 담임목사가 교인의 절반 이상을 데리고 나가 교회들 세우면서 남아 있는 교인들 상당수도 흩어지고 교회

는 혼란을 계속해 오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25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 교회가 분열된 후 오랜 기간 갈등과 대립으로 교인들은 신앙의 깊은 상처와 함께 교회에 소극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책임성의 결여로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담임목사와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10여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담임목사는 교회를 사임하였다.

하나교회가 위치한 인천시 용현동 지역은 한국전쟁으로 떠난 온 이들 중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다가 정착한 이들이 많은 지역이며 인생의 많은 굴곡과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많다. 현재까지도 경제와 복지면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가 2002년 부임하여 교회성장을 위한 계기들 마련하기 위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교회의 이름을 2004년 하나교회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교회주변지역이 도시개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011년까지 세워지며 하나교회도 예배당을 보상받아 이전 건축하여야 한다. 하나교회가 이전 건축할 부지는 50미터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예배당이 건축되고 주변개발이 완료되면 적지 않은 교회성장이 예상된다.

제 2 절 교회현장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위한 진단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교회가 그 생명력이 약화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목회자는 먼저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힘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보다 이해와 정확한 목회적 진단을 통하여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교회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목회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찾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성서적인 공동체적 교회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행

1:17)는 말씀에 담겨 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고 하셨다. 이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함축된 용어로 강조한다. 그런데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 만 믿으면 다른 것은 크게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런 인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몇가지 교리를 알고 인정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생활 속에 예수의 삶이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한다. 이런 경우 이기적인 개인 구원에 집착을 하게 되며, 또한 기복신앙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한국교회에는 예수가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의식과 교회조직 그리고 관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포기하게 만든다. 교회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 제도화 되고 권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 가게 된다.

이런 제도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단순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⁸³⁾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형상인 공동체적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인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과 행사들 통한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인식하여 교인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에 열중하거나, 교리나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의 주장이 절대화 되어 교인들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기도 한다. 교인들은 피라미드형 구조인 교회의 제도 하에서 경쟁하듯 직분에 집착하고,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 크게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순수한 신앙적 자세로 겸손과 감사 그리고 헌신의 모습보다는 자기들 드러내고 과시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구약에서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끊임없이 찾아 왔었다(대상16:39-40; 대하1:3-5; 렘7:12-14).

83) 프랭크 비올라, *1세기 관계적 교회*, 44-45.

이와 같이 제도권 교회는 제단 위에 놓인 제물과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을 혼동하고 있다. 제단 위에 놓여진 몇 점의 제물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제도권 교회의 비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신 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교회 프로그램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것이다.⁸⁴⁾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한 편견이 일반화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교회는 교권주의가 일반화 되고, 교회의 직분은 사랑과 섬김의 역할보다는 권위와 권세의 자리로 인식되어 교회 내의 직분의 계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역사가 깊수록 강하게 나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교회는 전형적인 제도권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하나교회에 부임할 당시 교회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었다. 직분에 따른 계층이 뚜렷하였고,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 그 중심에는 기도 많이 하는 이들, 신앙을 대물림한 이들,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이 주류였다. 예배 외의 모임에는 늘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교회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되었으며 교인들은 영적인 무력감과 피해의식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의사를 독점하는 소수의 교인을 제외한 교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자위하며 가능한 주목받는 것을 꾀하려 하였다. 조금이라도 책임적인 자리에 서면 감당하기 어려운 눈총과 상처를 받기 때문이었다. 책임을 질 만한 일에 나서지 않으려 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 버렸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84) 프랭크 비올라, *1세기 관계적 교회*, 44-45.

고 소개한 성령공동체의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성도들은 꺾어 주고 받은 상처로 위로와 치유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다. 일반적인 목회적 관심과 베푸는 사랑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이런 사역을 원만하게 10년 동안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으로 여기며 목사의 목회적 사역을 가르침이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지는 것을 거부해 왔다. 심한 경우 자신들의 기대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경우 무시한다고 여기며 불평을 하거나 목사들 대적하기도 했다.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기쁨, 헌신의 자발성과 재미, 그리고 교회생활의 보람과 소망으로 가득찬 신앙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회적 과제들 갖게 되었다.

이런 목회적 과제는 조직의 운영이나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게 하면 교회들 무난하게 운영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성서적 신앙과 교회로 회복할 수는 없었다. 목회자는 단순한 조직의 경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세워 가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하나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빈곤으로 본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본질이 공동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이 은혜와 은사의 주체가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인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이 서로 하나이듯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한 교회로서 성장을 지속하며, 하나님께 부여 받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2. 인천 제7교회에서 하나교회로

성서적 교회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현장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했다. 하나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 된 만큼 전형적인 제도권적 교회로서의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에 대한 집중적인 설교로 교회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하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들 통하여 공동체적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설교들 통하여 교인들은 점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성경공부들 통하여 공동체적 교회생활과 사역을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신앙생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담임 목회자의 교체와 함께 시작된 교회의 변화에 교인들이 쉽게 호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목회적 과제였다. 목회자로서의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들 위해서는 역사적 전환이 필요했다. 지금까지의 교권적인 교회에서 공동체적 교회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교회명칭을 인천 제7 교회에서 하나교회로 변경했다.

당시 인천 제7 교회라는 명칭이 제7 안식교와 혼동하거나 같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교회의 역사적 전환과 교인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으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의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1-6)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명칭을 하나교회로 정하였다.

또한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교회 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로 인해 ‘인천 제7교회’라는 명칭은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이것은 교회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교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들 주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려해도 ‘인천제7교회’를 기억하는 이들은 좀처럼 새롭게 보려하지 않았다. 새로운 교회이름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들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3. 목회패러다임의 전환과 조직의 변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교회로 성숙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교인들의 일반화 된 개인주의적 신앙과 무책임 그리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공동체적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집중적인 설교와 성경공부로 교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들에게 설교들 통하여 교리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하지만 교인들은 스스로 받은 설교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일수록 신앙지식과 실제생활의 괴리감으로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낀다. 교회는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받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들 마련해 주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을 것(마 28:18-20)과 땅 끝까지 예수의 종인 될 것(행 1:8)을 명령하셨다. 이에 앞서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셨고(마 1:1-15),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가르치시고 두명씩 짝을 지어 각처로 보내시고 돌아 와서 보고하게 하셨다(눅 10:1-20).

실제적인 공동체적 삶이되기 위해서는 교회생활이 공동체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되어야 했다. 하나교회의 사역활동은 주로 남·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체는 몇 명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상황이었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사역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소외된 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인관리들 위한 조직으로 13개의 구역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인들의 신앙의식은 소극

적이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어 직책을 맡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특히 구역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원의 동질성을 찾기가 어려웠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 구역모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들 하는 가정의 보편화 되면서 구역예배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책임을 맡은 구역장들은 활동의 한계들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비공식적인 친목형식의 끼리끼리 모임들이 있어 이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와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고, 출신지역과 친인척 관계 등으로 교회는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의 교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다. 남녀 전도회와 구역조직을 ‘목장’공동체로 개편하였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교인들은 불안해하고, 당회원들 중에는 심하게 불평하기도 했다.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목회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교인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다. ‘목장’은 선교와 교제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적 신앙양육을 목표로 한 소그룹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활성화들 위해 비슷한 연령의 또래모임으로 조직하였다. 또래의 동질성으로 쉽게 친근해지고 교제함으로 소극적이고 소외되었던 교인들이 적극적이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교제를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에서 점차 선교와 섬김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동안 묻혀 있던 교인들이 일군으로 등장하고 교회의 분위기는 밝아지고 교인들의 헌신이 눈에 띄게 활성화 되었다.

목장은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로서 자율성과 유기성을 기초로 한 선교사역으로 성서적인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남녀를 구별하여 목장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부 중심의 목장으로 전환하여 ‘가족교회’의 모습으로 진화해 가고자 한다.

제 3 절 목회신학

교회의 성장에는 다양한 요소와 역할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중에서도 목회자의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나라 백성 된 자들의 신앙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회자의 뛰어난 자질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했을지라도 신학적인 방향성을 잃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결여 되면 그 목회들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목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따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땅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목회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신령과 사람의 죄악,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욕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목회의 대상인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에 타협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이방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행 21:19-24).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명령에 이견이 없이 순종하였다(행 13:1-3).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들의 분명한 공동체적 지도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분명한 목표들 세우고 교인들을 인도해 가야 한다. 이들 위해서는 목회자의 올바른 신학이 기초되어야 한다. 하나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을 믿고 따르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 목회자가 교회들 떠나야 했다. 이런 교회 상황에서 목회자들 믿고 따르게 하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분명한 신학이 중요하다.

1.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저자인 누가는 교리나 교회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생명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회의 시작과 확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에 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

다.⁸⁵⁾ 그리고 이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행 1:8). 물론 사도들과 교인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협력자요 동역자일 뿐이다.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방법이였다. 그리고 성령께서 택한 백성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수단이였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제시하는 메시지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에 관한 것이다. 창조의 기사도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들 살리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행 5:30).

교회의 역사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협력자일 뿐이며 교인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더불어 순종하며 성령과 동역하는 그의 백성이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며, 목회의 주체도 목사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설립부터 성장과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다른 직무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한다(고전 12:4-7; 벧전 4:10). 은사의 주체자이신 성령께서 목사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장해 간다. 뜻있는 사람이 교회들 세워 관리하며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들 주관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교권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의 규모가 클지라도 성공적인 교회라 할 수 없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대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제일 먼저 세워나가신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예루살렘교회는 핍박으로 교회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고 성령님의 선교적 역사는 예루살렘

85) 조지 피터스, *교회성장신학*, 임흥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5.

교회가 아닌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교회들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런 역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예루살렘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교회는 구제의 방법과 대상에 대한 불만과 대립으로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한 요소였던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이다. 공동체성이 무너진 교회는 조직은 남아 있더라도 성령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성령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고, 이 교회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은사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목회자의 분명한 신학은 성령을 통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고 확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성서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

2.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8-20).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결신한 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고, 계속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한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⁸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세력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려고 하심이였다. 이제 까지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고 스스로

86) 김명호,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3), 54.

자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들이 지나가버렸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의 족장들로부터 말미암는 혈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들 통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⁸⁷⁾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성격이나 학식, 신분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거나 종교적인 소질이 뛰어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가롯 유다는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 주었던 세베대의 아들들도 제외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 대신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 혹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의지의 결과인 것이다.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가르치셨다. 수많은 무리가 모인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눅12:1).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들 우리(제자들)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십니까?”하고 물을 정도였다(눅12:41). 54절이 되어서야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누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보다 열두 제자들 더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다. 누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문구들 반복하여 곁들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하여 기록한 것(눅 16:1-13; 17:1-10, 22-37; 18:31-34; 22:14-46)을 보면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가를 알 수 있다.⁸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으나 이들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할 일군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였다.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마 24, 25장)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강의’를 하신 것(요 13-17장),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마 10:16; 눅 10:3)는 말씀으로 훈련의 어려움을 가르치셨다.⁸⁹⁾

87) Otto Dibelius, *제자들*, 유은상, 이영록 역 (서울 : 도서출판 대학촌, 1990), 13-14.

88) 김명호, *교회와 제자훈련*, 59-60.

바울은 “또 내가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는 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바울은 진리와 생활 규범의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자기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들로, 충성된 자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신약에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졌는데, 이는 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의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⁸⁹⁾ 이런 면에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하였으며, 복음전파의 열정과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공동체적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셨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들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편하게 살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해야 한다. 이 훈련의 도구는 말씀이며, 훈련의 주체는 목회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동역자들 부르시고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공동체적 신앙을 위하여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목회자는 개인적인 가치들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분으로 목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신앙과 선교적 사명을 위해 교회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진리와 열정과 책임성을 갖고 말씀으로 훈련을 담당해야 한다.

89) 김명호, *교회와 제자훈련*, 59-80.

90) Ibid., 55-58.

3. 목적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들 영광스런 목적의 완전한 성취를 이룰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다(엡 2:22-23; 2:19-22; 3:8-13; 4:8-16; 5:23-32).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교회 내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간의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의 경우처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교회들 확장해 가야 한다(행 2:47).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마 28:19-20; 행 1:8)을 따라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 천국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창 1:26-28).⁹¹⁾

교회가 기독교의 교리와 양적인 성장에만 집착하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동체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도 열린 사고로 지역사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지역사회를 향한 공동체적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에는 적극적이어서 세계적인 선교국이 되었으나 정작 한국사회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결국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선교의 실적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온전한 교회공동체는 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들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적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의 교리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선교보다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관계성을 통하여 인정받고 칭송받음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장해 가고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한다. 교회는 불신사회를 지탄하고 정죄하기 보다

91)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138-139.

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적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인생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하고 교회공동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봉사를 통하여 호감을 갖고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 이들 위해 교회는 지역사회의 고민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여러 지도자와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들 위해 고난 받으시고 결국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사회를 향하여 찾아 가야 한다. 의사가 손쉽게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면 병원에서 환자들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면 환자들 찾아 갈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들 찾아 가서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왕진'이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만 부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찾아 사역하는 왕진사역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한다.

제 4 절 목회비전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성서적인 교회공동체적 사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세워 갈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삶의 자리로 확장하게 하는 동기와 힘이 필요하다.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적인 의식과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했다. 함께 이루어야 할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했다.

1. 3-3-3비전

하나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 '3-3-3'비전을 세웠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는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단선교부 및 선교단체 100곳을 대상으로 선교사 파송 현황을 조사한 데 따르면 6832가정 1만 2159명의

선교사들 해외에 파송한 것으로 조사됐다.⁹²⁾ 이 조사에 따르면 필자의 교회가 소속한 예장통합 총회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는 751명으로 교회평균 0.11명이었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선교사들 파송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교회는 3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 첫째는 하나교회가 선교사역을 교회의 존재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동시에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한 교회가 30명의 선교사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교회의 여건을 보면 이 목표는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목표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선교신앙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신했던 안디옥교회(행 13:1)처럼 기도와 금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자 한다.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들 설정함으로 이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과 선교신앙을 강화할 수 있고,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들 파송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제목에 갖고 있다. 이는 선교사들을 분산 파송하는 것 보다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송하여 공동체적 선교협력으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3-3-3'비전의 두 번째 내용은 300명의 평신도사역자들 양육하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의 지도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하던 수동적인 교인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활성화 되고 교회 공동체를 원만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다양화 되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들 교회가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의 사역을 제

92) 2004년 4월 18일자(월)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내용.

한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것은 교직에 대한 권위주의적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교인들은 순종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에 치중하게 된다. 이런 전통적인 교회론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⁹³⁾ 그래서 선교는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물처럼 되어 있다. 평신도는 예배와 자기중심적인 영적 요구들 위해서만 교회에 필요로 하는 무능한 무리로 전락하고 만다. 예배는 있으나 증거가 결여되고, 교육은 있으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 있는 삶으로 평신도를 부르는 책임 있는 훈련과 사역이 무시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과 선교의 과제를 가진다. 이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역자의 교회도 아니며, 평신도의 교회도 아닌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이다.⁹⁴⁾ 교회는 종교인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에 의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의 백성인 동시에 그의 동일한 뜻에 의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증인의 공동체로서 항상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의 서로 복종과 봉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전 12:13-28; 빌 2:7-8; 요 13:15-16).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열중하여 훌륭한 일꾼을 양성하여야 한다. 에즈라 바운즈(E. Bounds)의 말처럼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목회의 성공여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불신자들 신자로, 신자들 동역자로, 동역자들 사역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의 바람직한 성장과 공동체적 교회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의 구성이 평신도들이며 성장의 대상도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학을 체계화시킨 도날드 맥가

9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59.

94) Ibid., 55.

브란은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성장을 이루려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개발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분담과 기능개발을 위해서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⁹⁵⁾

전 교인이 전문적인 사역자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평신도들 사역자와 동역자로 구별하여 집중훈련을 받은 사역자는 목회적 위치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헌신하게 한다. 나머지 평신도들은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위치에서 배우고 협력하고 동참하게 한다. 평신도사역자와 동역자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고 동역자들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사역자로 양성해 가야 한다. 평신도사역자는 목회자들 통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회사역의 전문분야에서 다른 평신도들을 양육하며 헌신의 주역이 되게 한다. 이러한 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역자와 동역자의 비율을 1:10으로 보아 3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하여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3-3-3’비전의 세 번째 내용은 3,000명의 선교동역자들 세우는 것이다. 목회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로서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장로와의 갈등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재정 운영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성경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는 선교와 구제 등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나 장로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인식에서 교회의 재정능력에 관심이 더 많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분명 세상을 구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지 않는 중소형교회로서는 교회 자체운영 외에 여력이 없어 교회의 선교사역과 지역사회들 위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약한 자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의 성장은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여건을 감안할 때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역사회들 위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3000명 정도의 교세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95) Donald A. McGavaran & Win Arn. *교회성장의 열 단계*. 목회신서 8. 오태용 역 (서울: 신광출판사, 1987) 86-87.

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한 우리의 이유 있는 계획이며 시대들 위한 우리의 비전이다.

현재 하나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 남구 용현동 지역은 인천시가 2011년까지 목표로 하는 주요도시개발지역이다. 약 80여만 평의 주거도시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특히 하나교회는 도시환경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이 기간 안에 50미터 도로에 인접한 대지로 예배당을 이전 새로 건축하여야 한다. 매우 좋은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교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적 신학과 선교적 신앙으로 분명한 신앙적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며 시대들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많이'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3-3-3'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자 한다.

2. 복지목회

교회 공동체는 여유 있는 자들의 신앙공동체로서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전 생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가 선진국형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고령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는 맞벌이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들 국가가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지 않은 노인들이 사회적 절대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현실과 신앙의 이중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교회 밖의 개인의 문제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현실이며 아픔이요 갈망이므로 곧 교회의 문제인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짐을 들어 주며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들 위한 것이 복지목회이다.

어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고, 노년에는 교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이들 위해 학생들은 열심히

히 공부하고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면 평신도선교사로 혹은 봉사자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노년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실버시설에서 임종까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원하는 교인들에게 시행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사명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일하게 하고,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3. 출산목회

교회는 생명공동체이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교회성장이 특정한 대형교회에 집중되는 것 보다는 건강한 여러 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적인 특성을 수용할 수 있어 더 많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교회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들 분립하는 출산목회계획을 가지고 있다. 십일조들 드리듯이 교회성장을 통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교세의 10퍼센트의 교인을 분립하여 교회들 세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 목사에게 교회개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의 상황을 조사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배당 마련과 교인분리들 시행하여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출산목회는 해외 선교사역 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라 판단되며, 교회 전 성도가 하나 된 기쁨과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이 시대들 위한 사명자로서의 보람을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한다. 이런 정책은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확신하며 교회의 성장과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이런 교회의 비전을 분명히 하여 전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통하여 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교회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3-3-3」 비전을 세우고, 공동체적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위한 복지목회들 계획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네트워크들 구성한 공동체적 연합사역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역 복음화들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목회들 목회비전으로 갖고 있다. 이 목회비전은 하나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공동의 신앙목표들 갖고 함께 협력함으로 공

동체적 관계성을 증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며, 지역사회와 세계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신앙과 교회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교인들이 적극적인 동역자와 헌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교회의 변화에 대한 동기와 목회자의 목회신학과 비전에 대해 이해하고, 신앙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 갖게 해야 한다. 이들 위해 먼저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하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대한 이해와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담임목사의 열정을 느끼게 하면 훨씬 효과적인 결과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위해 지금까지 하나교회의 역사와 목회현장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하여 목회의 방향을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이한 목회신학과 목회비전을 정리했다. 이것은 미래들 위한 바램이며 의지에 불과할 수 있다. 이들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방안들을 다음 장에서 정리할 것이다.

제 6 장

하나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교회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발전시키고 확장해 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됨을 계획하셨고(창 2:24), 구속을 통해 하나 됨을 창조하셨다. 하나 됨을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드린 제사장적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었다(요 17:11, 21-23).⁹⁶⁾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생활을 통하여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하고 관계들을 형성하여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공동체적 신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할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회비전과 성도들의 이해 그리고 실제적인 전략과 시행이 필요하다. 하나교회는 침체된 교회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 신앙을 회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들을 증진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조직을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로 전화하고 이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지역사회들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제 1 절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과 같은 것이다. 공동생활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함과 연대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들 위해서는 소

96) Bilezikian, *공동체*, 64.

그룹의 공동체들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⁹⁷⁾ 그러나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이 공동체들 이루는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소그룹 운영의 단점도 분명 있다. 공동체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그룹이 강조되면 공동체가 아닌 패거리가 되어 교회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대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이 성경적 교회 공동체들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 관계들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친밀한 공동체적 관계는 실제로 소그룹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⁹⁸⁾ 이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소그룹의 공동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교회는 바람직한 공동체적 신앙성장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성장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조직을 소그룹화 하였다. 먼저 가족교회로서의 공동체인 선교목장과 직분자로서의 사명공동체, 그리고 소명자로서의 사역공동체로 분류하여 공동체적 관계와 헌신을 그리고 교제들 통하여 온전한 교회공동체들 이루고자 한다.

1. 가족교회로서의 선교공동체

하나교회는 구역과 남녀 전도회로 운영해 오던 교회운영조직을 공동체적 신앙과 훈련을 위하여 가정 교회들 지향하는 선교목장공동체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장은 7-12명으로 하는 소그룹으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모임으로 구성하였다. 사역자로 목자와 부목자들 세워 목장의 지체들을 양육하며 운영을 담당케 하고 있다. 목장 운영의 우선 목표는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들 통해 관심과 이해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오랫동안의 갈등과 분열로 교인들 간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심화되어 있어 새로 조직하는 목장모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신앙의 만남을 통하여 친밀성을 도모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고, 관심과 챙김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관계들 통하여 교회 공동체

9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82.

98) Ibid.

성을 회복해 가고자 했다. 처음에는 구역이 없어지고 전도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평들이 있었지만 목장모임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좋다는 반응들과 함께 각 목장들이 서로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을 띠면서 지금은 놀랄 정도로 좋은 모임으로 발전했다.

정기모임은 월 2회로 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정하고 주일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는 월례회 성격으로 목자가 경건 회를 인도하고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와 토의 및 교제들 하고 함께 식사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식사 후에는 교회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교제하도록 강조하여 가급적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유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일은 목장가정예배주간으로 정하여 목장별로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와 교제중심의 모임을 갖고 있다.

목장의 정원은 7-12명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 목장을 분립하도록 한다. 현재는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목표는 부부 중심의 선교목장공동체로 발전해 가고자 한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나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교회 내의 위화감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부부모임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자 선교목장 중에는 모임에 아내들을 초대하여 모이기도 하는데, 훨씬 좋은 반응과 효과들 보고 있다. 각 선교목장이 특별행사로 배우자들 초청하는 기회들 갖게 하여 불신 배우자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 점차 부부 중심의 「가족교회」 들 지향하는 선교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공식명칭은 '선교목장'이며 각 목장마다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면 '로댐선교목장', '평화선교목장', '은혜선교목장', '충성선교목장' 등이다. 명칭을 선교목장으로 한 것은 이 공동체가 단순히 교제공동체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분명한 정체성을 선교사역에 두기 위함이었다. 교회 안에서 각 목장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선교사역을 통한 지체들 간의 책임성과 응집력을 높이고,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의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한다. 각 선교목장에서 선교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 중 50퍼센트는 선교기관이나 선교사 혹은 미자립 교회들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동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50퍼센트의 의미는 앞으로 하나교회가 교회 전체 운영비

의 50퍼센트를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어 이들 미리 실천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장의 지도자 교육은 매월 셋째주일에 담임목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배내용과 인도하는 방법, 목장지체들 섬기는 자세와 방법, 목장운영을 위한 지침, 매월 중요한 과제들을 전달하고 전월 목장모임에 대한 보고와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목장의 목자는 목장의 운영을 전담하며 부목자는 목자들 도우며 목자로의 사역을 위한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목자와 부목자는 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신도사역자들 양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 일대일제자양육, 제자훈련반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신도대학과 평신도사역대학원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평신도 사역자로 양육해 갈 것이다.

2. 직분자로서의 소명공동체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직분자들을 세워 임명하거나 임직을 한다. 이는 교회의 하나 됨과 목회자들 도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함이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교회의 직분이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들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분자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나교회는 당회, 제1권사회, 제2권사회, 제3권사회, 바나바집사회, 디모데집사회, 에스더집사회, 마리아집사회로 각 직분자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같은 사명자로서의 공동체적 관계들 형성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헌신하게 한다. 각 직분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문적인 역할분담을 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체적인 교회들 세워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회의 직분을 소그룹으로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인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와 이들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 직분자로서 성공적인 헌신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을 갖고, 교회 직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 진정한 직분의 권위인 섬김을 통하여 가능하다.

가. 직분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책으로 그의 직분을 행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들 가지시고 왕으로 오신 그 분은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선지자이신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그의 몸 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들 통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다. 또한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대역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구별하는 것보다 먼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하여 맡겨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가롯인 유다가 죽은 후에 그들 대신 할 사도로 기도하고 제비들 뽑아 맞디아들(행 1:20-26) 세웠으며, 결과들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다. 현재 교회가 직분자들 세우는 것도 교회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세우심을 받은 소명자이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하나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그리고 이 직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수직적이었다. 교회헌법에 명시된 직분의 자격과 기준 때문이다. 세례교인이 2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서리집사가 될 수 있고, 집사와 권사는 5년 이상 무흠입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받아야 하고, 장로는 무흠입교인으로 7년 이상인 자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2/3 이상의 지지들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사나 권사로 상당 기간 시무들 하여야 장로로 피택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희귀성에 대한 가치들 느끼며, 아무나 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임직 받은 이는 그 직분에 대한 상당한 명예심을 갖는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달리 피택 되지 못한 이들은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로부터 무시당했거나 버림당했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교회는 적지 않은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교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인 의식과 의지

들 가지고 복수로 존재하면서 상호 인정, 상호 의존, 상부상조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계신다.⁹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 됨 안에서 영원히 세 분이다. 그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 되실 때 역동성과 상승작용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공동체적 속성을 부여하셨다. 더 나아가 이 하나 됨 안에 완전한 상호관계와 동등성이 존재한다.¹⁰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계급의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의 역할분담이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직무에 대한 오해로 나타난다. 행정적인 권한은 섬김을 위한 것임에도 군림하는 힘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공동체적 신앙이 결여된 교회일수록 직분자로서의 책임에는 소홀히 하면서 권한에 집착하여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있다. 이들 위해 특별한 일군으로 세움을 받은 이가 직분자이다.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교회일수록 권한보다는 성실한 섬김의 책임에 가치를 둔다.

나. 직분의 목적

직분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직위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통일된 교회(엡 4:5-6)에서 이 하나 됨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엡 4:7), 이 선물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다. 이러한 직분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 세워서 봉사함으로”(엡 4:12),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엡 4:13).

교회의 직분은 늘 같은 직임으로 불려진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직분 자체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이 기능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교회들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들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99)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52.

100) Bilezikian, *공동체*, 17.

들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로서 직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들 위하여 은사들 받은 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게하고, 교회들 세울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하는 지도자들과 직접 봉사를 하고, 교회들 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갖는 직분과 책임이 각각 다르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훈련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야만 한다. 지체가 완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훈련된 평신도들과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양떼들을 인도하여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전도와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으로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들 위하여 현명한 지도자는 평신도들을 봉사를 위한 훌륭한 일꾼들로 훈련시키고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평신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좋은 일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는 평신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분자로 세우고 헌신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직분자들 세울 때 양육과 훈련보다는 선택하고 임직하는 예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임직자 투표에서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리고 직분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은 결여되기 쉽다. 이러한 결과로 교회의 직분이 원래 목적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 세우는 일 보다는 자신의 직분을 권세로 착각하여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들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안일함이나 지도력의 부재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적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무지와 무책임한 개인주의가 만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잘못된 직분자에 대해서는 목회적 몰봄과 가르침을 통하여 지도하고 교회법에 따른 판단으로 교회의 질서들 세우고, 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적인 삶의 전통을 확립하고 대물림해 가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직분자들에게 교회직분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섬김의 자세와 책임 있는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직분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헌신하여야 한다.

다. 직분의 권위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종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고 하셨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는 욕망이 잘못이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았다. 어디에나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기들 다시 정의하셔서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권위를 중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에 기초한 리더십이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첫째가 되려고 투쟁하거나 권력을 위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뒤에 서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권위를 행사하라는 가르침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도자들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좋으므로 행하라는 엄격한 명령은 많이 있다(마 20:26; 막 9:35; 갈 5:13).¹⁰¹⁾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평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섬김의 결손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직분자가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의 결손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들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결손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심 같이 헌신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권위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권위는 곧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101) Bilezikian, *공동체*, 166.

3. 사명자로서의 사역공동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는 표현으로 바울은 교회의 여러 부류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훈련의 대상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으나 직분자들 따로 세우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교회들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교회는 다양한 기능의 영역으로 세분화 되어 왔다. 교회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인종, 신분, 기능, 남녀의 구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교회목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직분을 필요로 하여 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됨과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곧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내에서 조차 서로를 비교하는 죄 된 성향들 때문이다. 눈에 잘 드러나고 매력적인 직책에 집착을 하여 서로 경쟁하는 일, 하찮은 일을 맡은 이들을 무시하는 일, 직분에 대한 섬김의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자리에 집착하는 일 등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순서에 따른 계급처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단순히 개종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고 설명하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되게 하려 하심이었다(창 12:2-3).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은 종인, 종(사 41:10)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사역자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종의 관계들 가지며 각자가 최선을 다해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었다.¹⁰²⁾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섬김의 주체로서 부르

심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서로 수평적 관계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교회공동체의 사역에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공동의 임무에 공헌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면제되거나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¹⁰³⁾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교회들 그리스도들 머리로 하는 몸으로 비유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수직적인 권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를 위한 기능으로 건강을 유지하듯 교회도 상호간의 수평적인 이해와 섬김으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와 인격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소멸 혹은 개교회의 사라짐을 전제하지 않는다. 주체성을 지닌 지체들 간의 연합이지 주체성이 상실된 자아로 구성된 연합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독특한 생명체가 모여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들 이루는 것이다.¹⁰⁴⁾

교회의 구성원은 저마다 중요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르심의 뜻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한다. 혹은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차량봉사로 혹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로 섬김의 책임과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다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회는 교인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기회들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런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사역자 양육과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사역의 장을 만들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교회는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된 사도로서 섬김의 장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역의 분야별로 공동체적인 관계들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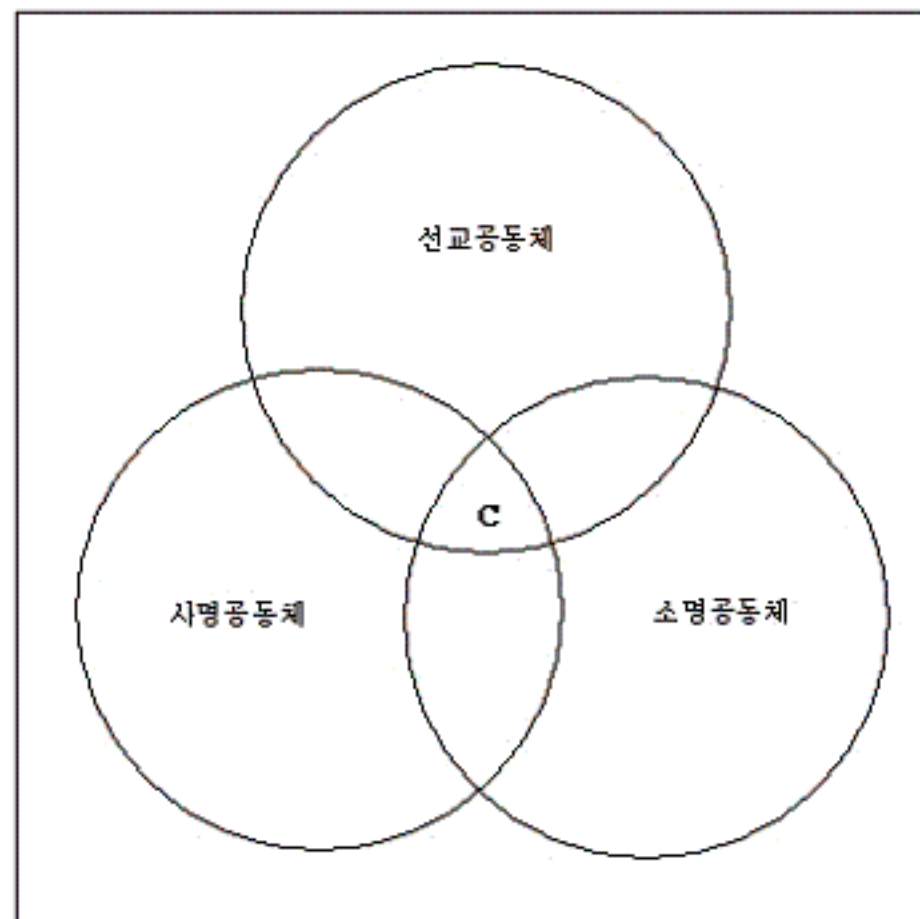
102) Bilezikian, *공동체*, 87.

103) Ibid., 86.

104)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25.

성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세우고 확장하는 데 그 목표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나교회는 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은 단순한 양적 성장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그 공동체를 확대해 가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소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가족중심의 가족교회들 지향한다. 이들 위해 교회의 구조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목장 중심의 선교공동체', '직분자 중심의 소명공동체', 사역자 중심의 사명공동체 세 부류의 공동체로 구성하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며 공통부분인 'C'가 커질수록 좋은 방향이라 본다.

<그림 1> 하나교회 공동체 구성표



제 2 절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현대인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특히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집단으로부터의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이며 교회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런 교인들에게 소그룹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하고 인정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분명한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¹⁰⁵⁾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인 교제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교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를 극복할 용기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인간의 관계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위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1. 특화된 헌신예배

헌신예배는 한국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다. 교회 내의 중요한 기관이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헌신예배는 해당 기관의 임원이나 회원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들 담당하고, 헌금, 그리고 특별찬양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식의 예배가 지속되어 오면서 헌신예배는 형식적인 행사처럼 되어버렸다. 헌신예배의 주관 부서원이나 성도들도 의례적인 예배로 인식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신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헌신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주체인 기관이나 공동체의 신앙의 방향성을 모으고, 협력을 도모하며, 구성원 간의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예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헌신예배는 획일적인 예배의 순서에 얽매이기 보다는 헌신예배의 주체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극, 발표회, 공연, 장기자랑, 초청예배 등 특화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역을 소개하고 신앙의 의지를 고백하며 결단하여 교회 전체가 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특화된 헌신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의 공동체간의 이해와 서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유기적 협력관계들 든든히 해갈 수 있다. 그리고 헌신예배들

105)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82.

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소극적인 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구성원간의 관계들 구체화하고 친밀감을 높여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2. 여리고 작전

과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는 오직 배부르게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고 축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대 이상의 것으로 배를 채웠고 소유하며 누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우리는 물질을 얻은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배는 부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들 모르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 이런 현대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물음이 있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¹⁰⁶⁾릭 워렌 목사는 이 질문에 철학적인 답이 아닌 철저하게 성서적인 답을 제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들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들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¹⁰⁶⁾ 분명한 신앙적 메시지는 물질만능의 사고 속에서 마치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메시지였다.

하나교회에서는 2년 전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40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행사들 ‘여리고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하나교회로서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큰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이었다. 이로 인해 안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 크고 깊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생명과 화평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세워야 할 목회적 과제였다. 그리고 교인들 간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견제 그리고 대립으로 누적된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하고 삶에서 느끼는 고난과 아픔들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듯 믿음으로 승리하

106)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23.

고자 하는 행사였다.

이 여리고 작전은 충실하게 준비하고 많은 교인들이 참여한 결과 기대 이상의 좋은 결실을 맺었다. 전교인이 40일 동안 새벽예배를 드리는 일과 예배 후에 매일 함께 간단한 식사들 하는 일, 그리고 주중에 공동체 모임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와 교제의 모임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통하여 그동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교인들이 개인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전환하는데 큰 계기와 힘이 되었다. 더욱이 당시는 선교목장공동체를 구성한 지 2년 차였으며, 공동체적인 모임과 교제에 교인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행사들 통하여 교인들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과 관계들 통하여 선교목장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고 40일 동안의 경험으로 통해 공동체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목장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금년에는 부활절 다음 날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40일간 '함께하면 풍성해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공동체들 위한 40일'이란 주제로 제 2차 여리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들 통하여 공동체적인 신앙을 확실히 세우고, 선교목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더불어 행복하고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 행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제'들 통하여 프로그램중심의 행사보다는 개인의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성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생명을 위한 사명이며, 구원받은 자의 헌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이다. 교회가 전도의 신앙과 행위들 강조하기만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폐쇄적인 상황에서 전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전도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교회는 먼저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자랑하게 되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자세로 공동체적인 관계들 형성하여 주민들에게 교회의 인지도를 높여 가야 한다. 이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들 위한 근본적인 바탕은 교회가 공동체

적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적 사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3. 예수가정선교캠프

가족중심의 가족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표와 그리스도적 선교사명을 위하여 '예수가정선교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약칭으로 '예가선캠'이라 한다. 이 행사는 가급적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방법은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진행되는 선교적 신앙을 위한 수련회이다. 이 행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정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개인화 되어 세대 간의 벽이 높아지고 특히 교회에서 조차 부서별로 교육행사들 함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텐트생활을 통하여 가족 간의 친밀성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가정과 교회들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교육과 나눔을 통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 행사는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됨의 진정한 의미와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동력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구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하나교회가 공유하고 기도하는 비전들을 새롭게 하고, 교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도와 헌신의 용사로 양육해 갈 것이다.

4. 축제화 된 제직회

일반적으로 교회가 당회들 중심으로 한 권위적인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교회는 폐쇄적이며 역할의 집중화로 교회 구성원의 참여도가 낮게 되고, 권위적인 운영 스타일로 교회 분위기가 경직되기 쉬워 교회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포용성을 갖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느끼는 소속감이 커 질수 있어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

다.

사명공동체인 직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임이 제직회이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제직회는 주일에 그리고 딱딱한 사무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경직된 분위기로 진행되는 제직회는 참석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직회의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정보고가 주를 이루며 교회에 따라 다른 안건이 상정되기도 한다. 합리적 사고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직회는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동체성이 약하거나 상실된 교회의 제직회는 늘 긴장감이 지배하고 불미스런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제직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런 제직회들 축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먼저 제직회는 주일이 아닌 평일이나 주말 저녁으로 하며 식사모임과 교제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월 개최되는 제직회들 연 2-3회로 줄이며, 상정안건도 단순한 재정보고만 아니라 교회내 각 부서의 보고들 칭찬 그리고 격려로 받고,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소개하고 준비된 계획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력해야 할 사항들을 나눈다. 교회의 각 부서 행사보고와 안건들은 상세한 유인물로 준비하여 제직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특별한 헌신자에게는 시상을 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로 진행한다. 제직회의는 목회와 교회에 대한 제직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나눔을 통해 제직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역의 결과들 통한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직들을 직분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선의의 경쟁과 유기적 협력관계들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해 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제 3 절 지역민과의 공동체적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

하나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인천 항구들 인근에 두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곳이며, 고향을 북에 둔 정착민들이 많은 지역이다.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임시로 거쳐하던 이들의 정착지가 되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교회의 양적 성장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근래 도시개발의 붐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들 위한 준비로 인

천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위한 전략으로 송도신도시 건설과 청라개발 지구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교회는 인천시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약 80여 만평의 도시개발계획지인 ‘용현학의개발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하나교회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011년 까지 예배당을 이전 건축하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주변의 신도시건설로 인한 교회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의 변화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바람직한 교회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관계들 통한 교회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이들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들 모색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존재가 아니라 역할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내노라”(요 20:21)는 말씀과 함께 지역으로 파송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마 5:13-16).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의 봉사의 삶은 교아와 과부들 돌아보고 구제 하는 일로 시작되고 발달하였다(행 6:1).¹⁰⁷⁾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지역의 사람들의 ‘영혼 돌봄’에 충실하였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3-47).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들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대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목적이며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

107) 박영호, *기독교회 사회사업*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9), 16.

이다. 하나교회는 지역민과의 공동체적 관계들 증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1. 왕진목회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세속의 불의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해야 한다(마 5:13-16).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교회는 외적으로 폐쇄적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내의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지역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였다. 우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좋은 교회로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한번 심어진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것이 왕진목회이다.

왕진이라 용어는 의사가 병원 밖으로 환자들 찾아 가서 진찰하고 치료하는 말이다. 왕진목회란 교회가 교회 밖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체계적인 사역을 통하여 헌신의 재미와 사역의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리에서 차를 대접하는 가로수 카페, 주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복지사역,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사역, 지역의 노인들을 모시고 교육과 놀이 그리고 점심을 대접하는 경로장수대학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긴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교인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관심과 섬김 그리고 봉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부활절에 팔죽을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호박죽을 끓여 사랑의 선물로 5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들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사랑의 봉사와 섬김의 사역으로 교회의 담을 열고 지역민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이웃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할 것이다.

왕진목회의 목적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걸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부름 받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2. 노인대학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진출 참여와 핵가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인들의 역할과 지위가 상실되고 약화되었으며, 새로운 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력과 기능은 크게 저하되었다. 인간의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평가되고 소득이 배분되는 사회에서 낡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노인세대에게는 사회로부터 자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심리적 소외감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질병과 조기 퇴직이나 명예에 따른 고독과 함께 사회의 핵심적 범위로부터 내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을 부양하고 수용하던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가족 부양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노인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받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노인들은 대부분 빈곤한 환경에서 청장년기를 보냈으므로 여가 활동을 즐긴 만한 방법과 기술,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주어진 많은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하나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노인들은 한국전쟁으로 피난 와서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며 임시로 정착했던 인천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노인으로 겪어야 하는 삶의 아픔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교회 주변지역은 인구구조에 있어서 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하나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사명이며 지역과의 공동체적 관계형성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하나교회에서는 3년 전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무료로 개강을 한다. 오전에 노래교실과 교육과 건강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점심식사를 한다. 오후에는 선택교육으로 건강 체조교실, 종이접기, 서예, 한글학교, 성경공부, 무료 이미용 등이 진행된다. 점차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일주일중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노인들에겐

배움의 기회와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담임교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자기 가치와 존중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어 기대 이상의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의 어른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섬김을 통해 교회가 어른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임으로 지역민들이 하나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교회로서는 사역자들이 신앙적인 보람과 더불어 선교적 책임감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교회와 지역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하겠다.

3. 선교유치원 운영

유아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도록 도우며 자기완성과 성숙을 도우며 성숙한 의사결정과 내면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¹⁰⁸⁾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교육은 빠들수록 효율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모세들 통하여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관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6-9)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한 인격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통한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학교들 세워 체계적인 신앙교육과 훈련으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가능한 교회 밖으로도 기회들 넓혀 가야하며, 선교적 관점에서도 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들 동시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유아교육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교회가 지역민과의 자연스런 만남과 좋은 관계들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으로는 선교원을 들 수 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적지 않은 간섭을 받으나 선교원은 그 목적의 우선이 유아교육을 통한 선교에 두기 때문에 운영자인 교회의 의지들 분명히 할 수 있다.

108) 정희영,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22.

하나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선교원은 유아교육을 통한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강한 연관성을 갖게 하고 교회와 지역 간의 공동체적 관계들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교회가 과감한 투자를 하여 지역에서 주목받고 교회의 신앙적 의지들 학부모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영방법으로는 수업료들 거의 무료로 하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로서는 그만큼 부담을 안는 것이다. 현재 유아 보육료가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만큼 비싸다. 자녀들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이 일반적이므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자녀들 위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보육료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원의 보육료들 최소화 하면 자연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가능한 최고의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원생 모집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입학을 허용할 때 신앙교육과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는다. 또한 평일의 수업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교회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약속을 받는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급적 자주 갖게 하여 자녀들 통한 학부모의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회와의 만남의 기회들 갖게 할 수 있다.

하나교회는 과거 한국전쟁 후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 내에 빈곤가정의 자녀들 위한 유치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그 때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지역의 중년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통한 교회와 지역의 공동체적 관계들 맺고 아울러 선교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4. 장의사역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 앞에는 빈부의 차이도 지식의 유무도 권력의 대소도 구별이 없다. 산업사회의 복잡다양한 생활로 장례법은 점점 간소화되어 망자 중심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는 집에서 행하던 모든 장례의식들이 간소화 되고 장례 전문예식장이나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결국 장례행사가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어른공경의 정신은 점차 퇴색되고 인생의 통과의례로 변하고 있어 편의주의와 물질주의 확산으로 장례형식만이 남아 사회적 역기능을 표출하고 있다.¹⁰⁹⁾

아직도 매장을 중시하는 인식이 있어 국토는 점점 묘지화 되어가고,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의 자연은 훼손되어 가고 있다. 점차 화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면서 화장장 건립은 우리 사회의 행정적인 과제로 등장했고, 이로 인한 집단이기주의의 대립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풍습이었던 장례식이 상업화 되면서 망자들 빙자한 업자들의 횡포와 폭리로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영세민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이 되며, 가족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열등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인생의 비애가 되고 있다.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더라도 주차문제와 분잡함 등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의식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장례예식의 경건성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의식이 되고 만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하나교회는 교회 내에 장례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교인들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상조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뜻있는 장의사와 협력관계들 맺어 장의용품과 장의비용을 염가에 제공하게 하고, 교회는 이 분야에 전문사역자들을 훈련하여 도우며 섬기게 할 것이다. 특히 영세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자치기관 그리고 지역 유지들로 후원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하나교회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위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을 따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하나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성에 있음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목회비전을 세워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와도 공동체

109) 남기동, "21C 장례문화의 비전," *복지행정연구* (2001), 152.

적 관계들 확대하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고자 한다.

제 7 장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들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의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 정리하고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교회의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재부흥과 성장을 위한 과제들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 대한 목회적 진단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위기감을 느끼게 되기까지 분명한 원인이 있다.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다양화 그리고 다변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교회는 전통에 매여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며 세상을 향해 외치지만 듣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는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 선교초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전도가 되었으나 지금의 세대는 불신자들도 교회에서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어 단순히 말로 전하는 예수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높은 사고력과 도덕적 요구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한국교회들 향해 비판과 저항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학적 편견과 권위주의적인 교회운영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세상을 향한 소리는 요란하나 건강한 교회의 실체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고 하셨다. 사도행전의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므로 교회가 부흥하였다(행 2:43-47). 한국교회는 삶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칭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와 한국사회에 대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기하면서 2장에서는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정리했다. 공동체성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로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언제나 동역하시며 서로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일하시며 자신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섭리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협력하는 생명의 공동체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리고 교회는 종말을 향하여 사회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현세적인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들 향한 것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통하여 제시되었음을 교회가 책임 있게 선포하고 공동체적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함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교회공동체성의 실제적인 모형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공동체성을 연구하고,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교회의 성장과 선교적 사역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했다. 한국교회의 문제들의 핵심에는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들 오랫동안 지배해 오고 있는 유교문화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하며,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사회적 성공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으로 신속한 적응과 대처를 위한 목회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영향력을 확대해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교회현장에 대한 목회진단과 함께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처방과 목회비전들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교회가 성서적인 공동체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교회의 명칭을 ‘인천 제7교회’에서 ‘하나교회’로 변경한 것과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확실한 목회리더십을 위한 목회신학 그리고 교인들의 결속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회의 지속적인 공동체적 성장을 위한 목회비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하나교회의 모든 조직을 선교공동체, 사명공동체, 그리고 헌신공동체로 분류하고 그 안에 소그룹공동체들로 세분화 하여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역의 전문성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헌신예배, 공동체를 위한 여리고 작전, 예수가정선교캠프, 축제화된 제직회들 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교회의 지역민과의 공동체적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들로서 왕진목회, 노인대학, 선교유치원운영, 그리고 장의시설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하나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2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위의 내용들은 현재 많은 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한다. 예를 들면 ‘교회명칭변경’, ‘선교공동체·사명공동체·헌신공동체의 구분과 운영’, ‘특화된 헌신예배’, ‘공동체를 위한 여리고 작전’, ‘축제화된 제직회’, ‘왕진목회’, ‘노인대학’ 등이다. 이 논문은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목회적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목회적 진단결과 그 해결책을 교회의 공동체성에 찾았다는 점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들 거두고 있다는 결과에 감사한다.

지금까지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위한 목회적 과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성에 두고 연구하여 왔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이며 이 공동체의 근원이자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시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전적으로 상호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유기적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이러한 본질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셨다.¹¹⁰⁾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죄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110)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57.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공동체적 관계들 다시 세우시고 모든 족속들과의 관계회복을 희망하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사명과 이들을 위한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셨으나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 가르치고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요 7:38)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인 공동체적인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며,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요 3:5)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에서 성부, 성자가 하나 됨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요 17:11, 22).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서로 사랑으로 유기적 관계성을 이루어 공동체이듯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수평적 관계와 유기적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 보여 주어야 한다.

현대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들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다. 수동적이고 관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래방이다. 현대인들은 좋은 음악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부르고 확인하고 나타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충족은 소그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¹¹¹⁾ 이런 점에서 현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적 친밀한 관계들 형성하는 데는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중심의 교회로 전화하여야 한다.¹¹²⁾

미래의 건강한 한국교회의 모델로 권문상은 ‘가족교회’를 권장하고 있다.¹¹³⁾ 서구의 가정교회와는 달리 가족교회는 소수의 가정이 자발적으로 분화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교회의 지도체제와 수평적인 위치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 갖는 교회가

11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25.

112) 권문상, *부흥어제인 1907*, 282.

113) Ibid., 281.

다.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라도 가족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들이 조직되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조직 간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수평관계로서 서로에 대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며 의존하는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두드러진 장점은 교인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고, 가정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며 이는 곧 교인들의 가정이 가족 간의 공동체적 관계가 강화되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입시문제, 부모들의 맞벌이, 세대 간의 차이 등으로 가정의 위기감이 고조 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가족교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서도 개방적이며 적극적이어서 원만한 관계들 형성할 수 있고, 현대인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며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소그룹중심의 가족형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 수 있다.

하나교회는 이미 소그룹중심의 공동체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회들 선교공동체, 사명공동체, 그리고 헌신공동체의 3개로 분류하고, 각각의 공동체 내에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소그룹마다 역할을 특화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성을 이루어 가게 하고 있다. 공동체적 교회로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신앙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실제적인 헌신과 실천을 위한 역할분담과 사역을 지원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할 비전을 공유하여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가족교회들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들 확대해 가며 앞으로 있을 지역의 변화에 미리 준비하여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목회적 진단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하였다. 하나교회의 목회적 과제들은 특수하기보다는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교회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공동체성 결여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실제적인 회복이 곧 최선의 방안이다. 학문적인 전문성은 미흡하지만 하나교회의 목회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 회복이 교회들 건강하

게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정리하고 이들 위한 목회적 실천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는 점이 다른 교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 김명호.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3.
- 김병서. “교회공동체의 사회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84년.
- 김삼복. *평신도신학*. 서울: 평신도목회연구원, 2000.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철손. *해설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남기동. “21C 장례문화의 비전.” *복지행정연구* (2001).
-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박근원.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1988.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들 살린다*. 서울: 기독교출판 에벤에셀, 2000.
- 박영호. *기독교화 사회사업*.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9.
- 박용규. *평양 대 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기교교육연구원, 1977.
- 박형룡. *사도행전 주석*. 서울: 영음사, 1973.
-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배윤호. *안디옥교회의 모범*. 서울: 미션월드, 1992.
- 서정운.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성*. 서울: 한국사회이론학회, 1985.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2002.
- 신내리. *초대교회 100년 성장사*.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2.
- 신용하. *21세기 한국사회와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2004.

- 오광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풀러신학대학원, 2001.
- 옥한흠.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이대섭.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이상근. *신약주해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인한.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 서울: 은혜출판사, 1979.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 전호진.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3.
-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서울: 보문출판사, 1984.
- 정희영.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홍영기.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쉽*.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2. 번역서적

- Arnold, Heinrich. *공동체 제자도*. 이상신 역. 서울: 쉐터, 1997.
- Banks, Robert J.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 Belezi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6.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6.
- Eims, LeRoy.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2000.
- Engen,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Getz, Gene A.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디모데출판부 역. 서울: 디모데, 1997.
- Green, Michael.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Grenz, Stanley J. *하나님의 공동체들 위한 신학 조직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7.
- Machia, Steven. *건강한 교회들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1999.
- Moltmann, Jurge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일 외 4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 Niebuhr, H.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Peters, George W. *교회성장신학*. 임홍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Sine, Tom.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Vanier, Jean. *공동체와 성장*. 성찬성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6.
- Viola, Frank. *1세기 관계적 교회*. 박영은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6.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3. 외국서적

- Cosgrove, Charles H. and Dennis D. Hatfield. *Church Conflic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McGavran, 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0.
- McGrath, Alister. *Christian Theology*. Blackwell: Oxford, 1994.
- Neighbour, Ralph. *The Shepherd's Guidebook: A Leader's Guide for the Cell Group Church*. Houston: Touch, 1992.
- Van Engen, Charles.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Vita of
Yun Hwan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Hana Church, Inch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15, 1958
 Marital Status: Married to Hun Ok Kim with 2 children
 Home Address: 10-905 Yuwon Apt., Yonghun 2Dong,
 Namgu, Inchon
 Phones: 032-882-1051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y 8, 1992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Seoul, 1987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2002 to present: Senior Paster of the Hana Church, Inchon
 1995 to 2001: Senior Paster of Chungil Church, Seoul
 1993 to 1995: Assistant Pastor of Kwangsung Church,
 Seoul
 1992 to 1992: Assistant Pastor of Kukil Church, Seoul

